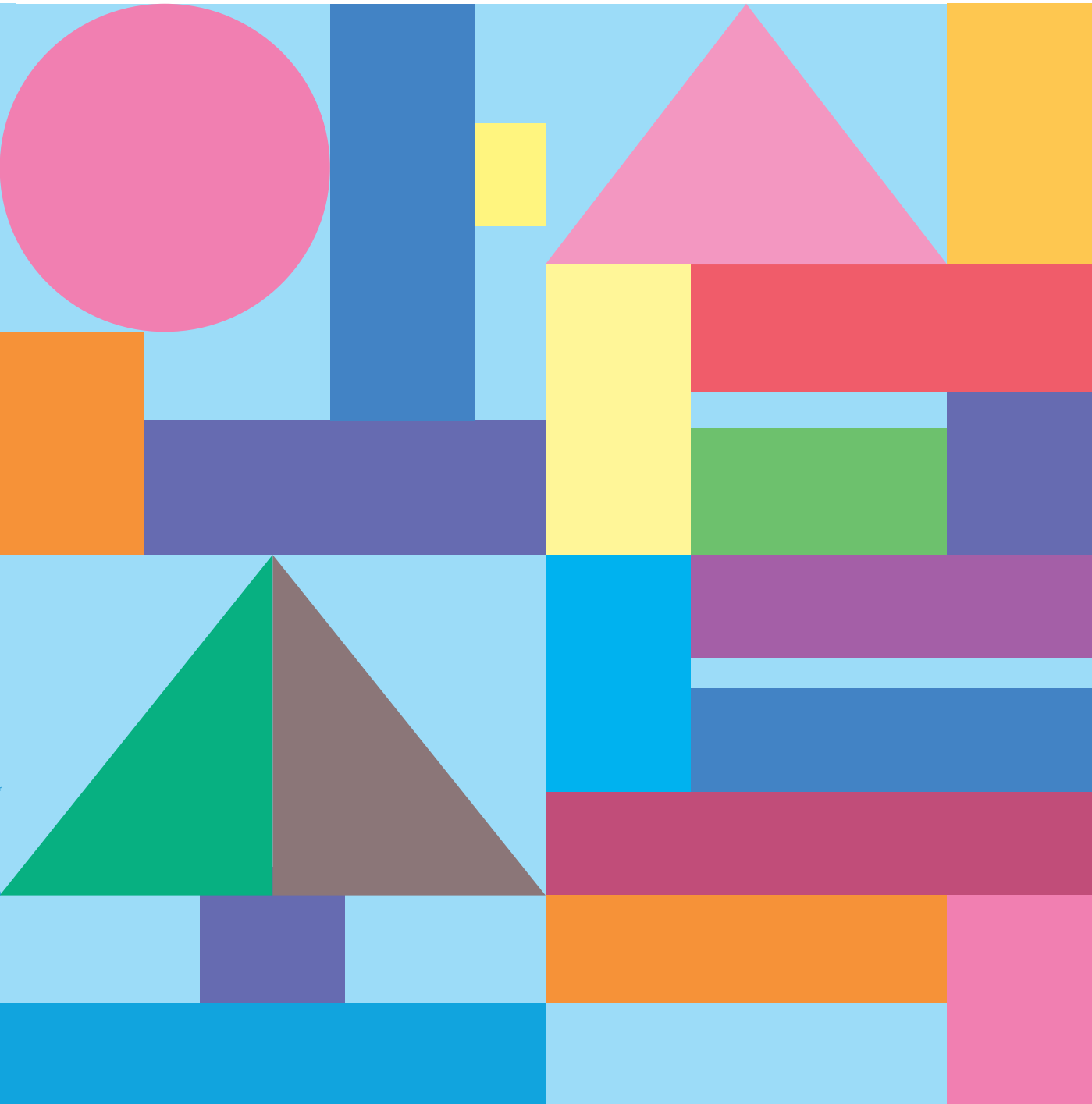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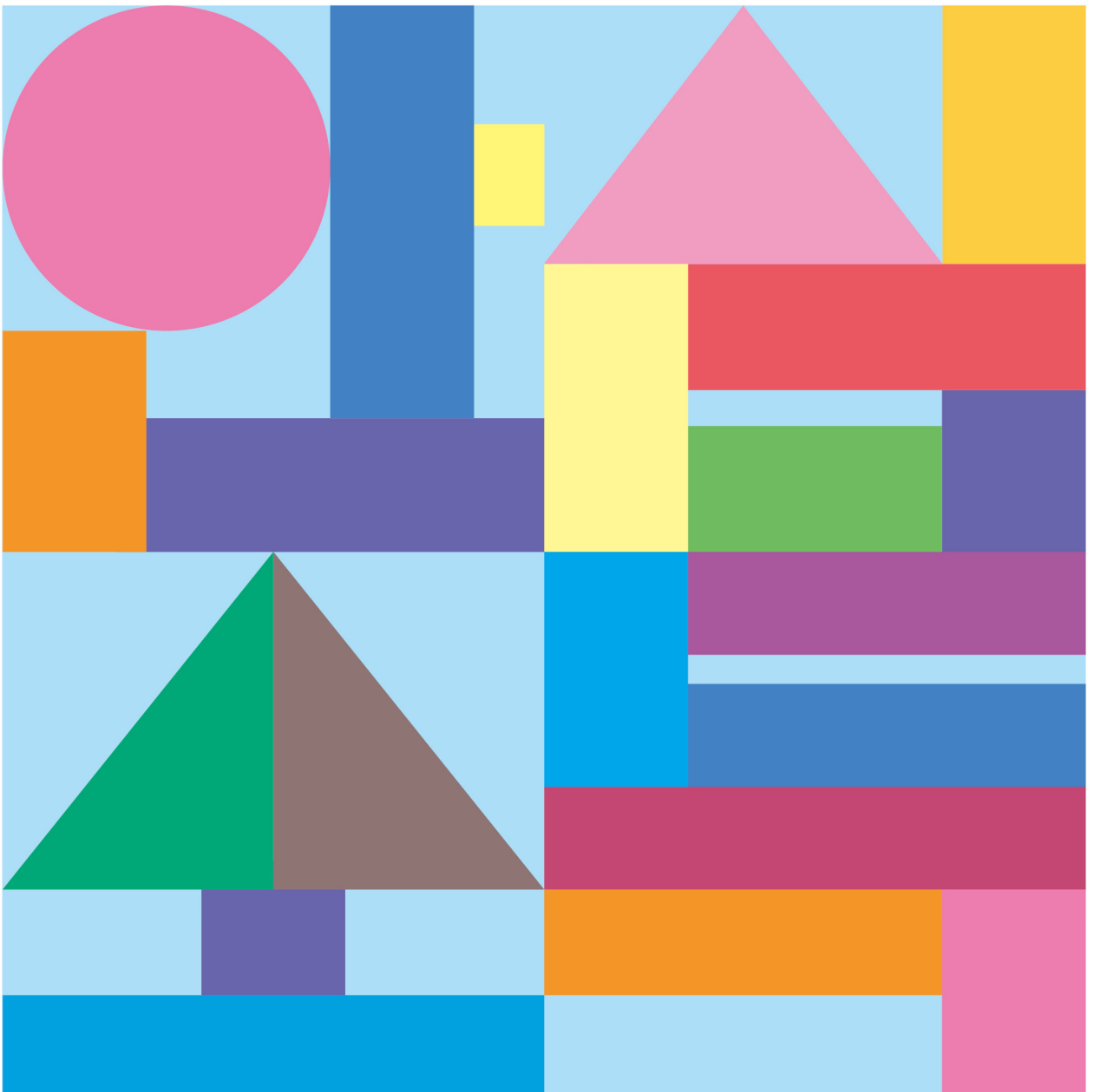


#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 책임연구원

하 석 철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 연구팀 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이 정 미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 연구팀 연구원)

## 참여연구원

김 보 림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 연구팀 위촉연구원)

박 재 범 (서울시복지재단 안심소득시범사업TF단 연구팀 위촉연구원)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의 필요 .....	3
제2절 정책실험 개요 .....	6
제3절 연구 목적 및 구성 .....	8
<b>제2장 국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b> .....	<b>11</b>
제1절 핀란드 .....	13
제2절 스페인 바르셀로나 .....	20
제3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	27
제4절 캐나다 온타리오 .....	30
제5절 미국 스톡턴 .....	36
제6절 독일 베를린 .....	42
제7절 미국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네트워크 .....	46
제7-1절 미국 LA .....	48
제7-2절 미국 LA 카운티 .....	50
제7-3절 그 외 미국 보장소득 실험 .....	52
<b>제3장 소득보장 정책실험 유형 비교</b> .....	<b>57</b>
제1절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비교 .....	59
제2절 급여 설계 방식에 따른 비교 .....	62
제3절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보장 정책실험 비교 .....	66

## 표 목 차



〈표 2-1〉 미국 보장소득 실험 현황 .....	52
〈표 3-1〉 소득보장 정책실험별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	61
〈표 3-2〉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보장 정책실험 특성 .....	63
〈표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	67
〈표 3-4〉 서울시 안심소득과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	68
〈표 3-5〉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	69
〈표 3-6〉 서울시 안심소득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	70



# 그림 목차

- [그림 1-1] 연도별 소득 분배 변화 ..... 3
- [그림 1-2] 보건·복지·고용 예산 추이 ..... 4
- [그림 1-3] 정책실험 설계 ..... 7
  
- [그림 2-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개요 ..... 14
- [그림 2-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주요 결과 ..... 18
- [그림 2-3]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역별 가구소득 ..... 21
- [그림 2-4] B-MINCOME 실험 지역 ..... 21
- [그림 2-5] B-MINCOME 실험의 참여집단 구성 ..... 23
- [그림 2-6] 캘리포니아 스톡턴의 지리적 위치 ..... 36
- [그림 2-7] 스톡턴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 36
- [그림 2-8] 지출 항목별 비중(2019.1. ~ 2021.1. 평균) ..... 40
- [그림 2-9] MGI 참여 도시 현황 ..... 46
- [그림 2-10] LA시 보장소득 정책실험 참여 조건 ..... 49
- [그림 2-11] LA 카운티 보장소득 프로그램 안내문 ..... 50
  
- [그림 3-1]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 변화 모식도 ..... 65
- [그림 3-2]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 67
- [그림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 70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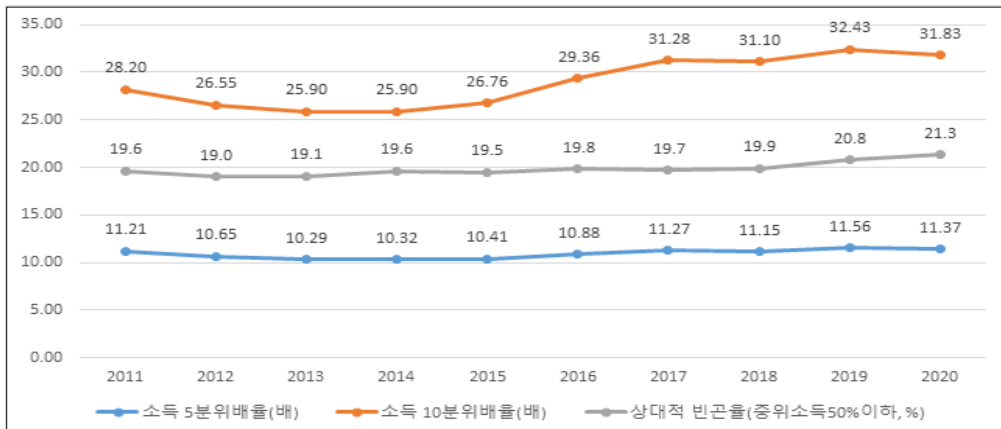




# 제1장 서론

## 제1절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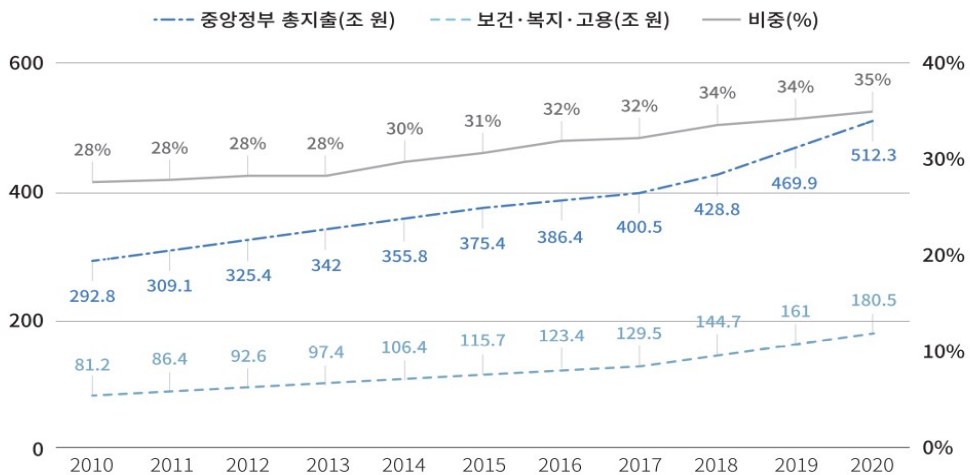
- 그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며 발전을 거듭함. 그러나 복지사각지대와 소득양극화 등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일자리의 성격을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가 대상으로 삼던 노동의 성격과 결을 달리하게 함. 자동화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소득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를 심화시킴.
-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사회구성원이 고루 누리지 못하는 모습은 소득 분배 현황을 통해 엿볼 수 있음. 통계청(2021a)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격차의 폭이 점차 커지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과거에 비해 높아졌음을 볼 수 있음([그림 1-1] 참고).



주: 시장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2021a).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1-1] 연도별 소득 분배 변화

- 소득 5분위 배율은 2011년 11.21배에서 2015년 10.41배로 약 7.1% 감소하였다가 2020년 11.37배로 다시 증가함.
  - 소득 10분위 배율은 2011년 28.20배에서 2020년 31.83배로 증가함. 이는 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계층보다 2011년에는 28.20배 많았고, 2020년에는 그 격차가 31.83배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2011년 19.6%에서 2020년 21.3%로 약 8.7% 증가함.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 및 소득보장정책 등의 확대를 통해 고용 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그림 1-2] 참고).
- 2010년 81.2조 원이었던 고용 및 보건복지 예산은 2020년 180.5조 원으로 약 122.3% 증가함.
  - 중앙정부 지출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정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 28%에서 2020년 약 35%로 약 25% 증가함.



출처: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정부재정현황」, 최영준·구교준·고동현(2020). p.6에서 재인용.

[그림 1-2] 보건·복지·고용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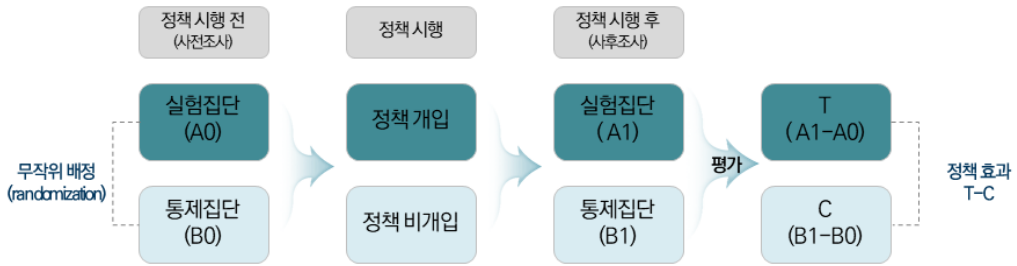
- 그러나 기존 사회보장제도는 과거 제조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경제구조 속에서 태동하였고 그것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면서 큰 틀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음.

- 즉,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제도를 덧붙여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소득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계를 갖게 함(노대명, 2022a).
-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 경험하는 문제는 아님.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에 따른 고용 감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사회적 이동성 저하 등에 따른 소득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역동성 저하 등의 문제는 앞서 산업화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겪는 문제임(최영준 외, 2020).
-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모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노대명, 2020b; 최영준 외, 2020).
-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소득보장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님. 기존의 소득보장제도와 분배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제2절 정책실험 개요

- 대안적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임. 정책실험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실험설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책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임(최영준 외, 2020).
- 정책의 효과를 가장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인을 대상으로 정책 개입과 비개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두 가지 결과의 차이를 확인해야 함. 그러나 인과관계 추론의 근본적 문제(the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erence)로 인해 인과관계에 따른 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설계를 통해 상기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 정책실험은 정책 대상의 전체 또는 일부(표본)를 ‘실험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하고 실험집단에만 정책 개입을 한 이후에 두 집단의 차이 비교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추론함(최영준 외, 2020).
- 즉, 정책 개입 이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결과변수)가 발생하였다면 이것을 정책이 갖는 효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임.
- 다만, 정책 효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무작위로 할당되는 것이 중요함. 그 이유는 정책의 대상이 각 집단에 무작위 배정되지 않을 경우 선택적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정책 효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각 집단이 가지고 있던 본래의 차이 때문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 이상의 정책실험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1-3]과 같음.





[그림 1-3] 정책실험 설계

- 정책실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성과의 확인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또한 성과의 측정과 통제집단의 확보 역시 용이해야 함. 더불어 시범사업이 갖는 사회적 유의미성 역시 정책실험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는 요건임(박윤수·강창희, 2018).
- 소득보장정책과 같은 분배정책은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켜 정책실험의 적용이 적합한 분야로 이야기되고(최영준 외, 2020), 특정 욕구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효과성 입증의 필요도가 높기 때문에 정책실험이 갖는 의미가 큼(오윤섭·이아영, 2018).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안적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국가와 도시에서는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정책실험이 진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미국 스톡턴시의 보장소득 실험, 독일 베를린시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있음.

### 제3절 연구 목적 및 구성

- 서울시 역시 2022년 7월부터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구상을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함.
  - 기준 중위소득 50%(소득 하위 25%) 이하의 121만 가구 중 복지 수급가구는 33만 가구에 머물. 이는 빈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가 88만 가구로 추산됨을 의미함(서울특별시, 2022).
  - 서울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평균액 간 차액의 50%를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기반 방식의 소득보장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빈곤 완화 등을 목적으로 계획됨.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약 5년 간 진행되는 사업(지원기간: 3년, 성과분석: 2년)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행 정책실험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의 사례를 검토하여 대안적인 소득보장정책이 갖는 의의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본 연구는 국외 소득보장 정책실험의 사례를 다룸. 사례 검토는 정책 개요, 실험 설계 및 방법, 실험 결과<sup>1)</sup>,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실험
  - 스페인 바르셀로나 B-MINCOME 정책실험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정책실험
  -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정책실험
  - 미국 스톡턴 보장소득 정책실험
  -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 정책실험
  - 미국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 네트워크와 그에 기초한 정책실험
- 두 번째 영역은 정책실험의 유형 비교임. 이는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과 급여 설계 방식을 기준으로 구성됨.

1) 정책실험이 완료된 사례에 한함.

- 마지막은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이 포함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방식의 정책실험을 보다 상세히 비교함.
  - 비교 방식은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과 국외 정책실험을 각각 비교하는 것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와 독일 베를린의 실험(연구-2 모형)이 대상이 됨.
  - 각 정책실험의 비교는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를 중심으로 함.



제 2 장

국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 제2장 국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 제1절 핀란드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핀란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진행함.
- 해당 실험은 기초실업수당(basic unemployment allowance) 또는 노동시장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을 지급하는 25~58세에게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를 지급(1개월 미만의 경우 일 18.67유로 지급)하고 노동과 삶의 질, 복지 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함(김도훈, 2019; 서현수·최한수, 2020; De Wispelaere, Halmetoja, & Pulkka, 2019; Kangas, Jauhiainen, Simanainen, & Ylikännö, 2019).
-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다음의 목표 하에서 이루어짐(Kangas, 2017).
  - 근로생활 변화에 발맞춘 사회보장제도 개선
  - 경제활동 참여 확대
  - 근로의욕 저해 요인 완화
  - 관료주의적 절차 개선
  - 복잡한 급여제도 간소화

##### 2) 참여 대상

-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 대상은 2016년 12월 1일 기준 25~58세이면서 같은 해 11월에 사회보험청(Kela) 기초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을 지급한 성인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핀란드의 실업인구는 약 24만 명임(De Wispelaere et al., 2019).

- 위와 같은 대상자 중 2,000명은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집단이 되고 약 17만 3천 명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이 됨(Kangas et al., 2019).

### 3) 급여 수준

-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 원) 지급
- 1개월 미만 수급할 경우 일 18.67유로 지급
- 이상의 정책 개요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음.

##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출처: Kangas & Simanainen(2017)

[그림 2-1]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개요

## 2. 실험 설계 및 방법

- 핀란드의 정책실험은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으로 설계되었고 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함(김도훈, 2019; De Wispelaere et al., 2019; Kangas et al., 2019).
  -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전국 단위에서 무작위 통제 실험이 적용된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임.
  - 목표 모집단은 2016년 12월 1일 기준 25세에서 58세 사이의 성인으로 2016년 11월 기초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 수급자임.
  - 이 중 무작위 표본 할당을 통해 2,000명의 실험집단과 약 173,000명의 통제집단을 구성함<sup>2)</sup>.

2) 통제집단 수는 문헌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임. Kangas 등(2019)의 보고서는 통제집단으로 17만 3천명을 제시하는



- 실험집단(기본소득 수급 집단)은 실험 기간 동안 취업 등의 근로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받음.
- 통제집단(기본소득 비수급 집단)은 취업 시 기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정책실험의 목적은 기본소득이 가지는 다양한 효과를 보는 것임.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복지와 안녕(wellbeing)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Kangas et al., 2019).
- 기본소득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보험청(Kela)에서 제공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근로, 과세소득, 고용촉진훈련 등의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함(Kangas et al., 2019).
- 기본소득이 안녕(wellbeing) 등에 갖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함. 이를 위해 실험집단 2,000명은 모두 조사대상자가 되고, 통제집단 중에서는 5,000명이 무작위 할당됨(Kangas et al., 2019).
  - 설문조사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 안녕, 주관적 건강, 구직활동, 고용 등을 조사함.
  - 설문 구성 과정에서 다른 인구집단(다른 실업자, 핀란드인, 유럽인 등)과의 비교를 위해 대표적인 조사(2016년 및 2018년 European Social Survey,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등)의 기존 문항들을 설문지에 포함시킴.
- 설문조사는 2018년 10월 17일에서 12월 14일까지 전화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됨. 설문조사 결과는 이후 공공데이터와 결합됨.
- 핀란드의 정책실험은 실험 전 기초선 조사를 행하지 못함. 이에 따라 이후 복지 및 안녕(wellbeing)에 대한 효과 분석 과정에서 한계와 신뢰성 문제 등이 초래됨(De Wispelaere et al., 2019).

---

반면 De Wispelaere 등(2019)의 글에서는 약 17만 5천명을 통제집단으로 이야기함. 본 연구에서는 Kangas 등(2019)이 작성한 핀란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17만 3천명으로 통제집단을 인용함.

### 3. 실험 결과

-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결과는 고용효과와 안녕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기본소득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함(Hämäläinen, Kanninen, Simanainen, & Verho, 2019).
  - 고용효과 분석의 표본 수는 실험집단 2,000명, 통제집단 173,222명임.
  - 연간 평균 근로일수는 실험집단 49.64일, 통제집단 49.25일임<sup>3)</sup>.
  - 근로소득자(고용 또는 자영업)의 비율은 실험집단 43.70%, 통제집단 42.85%임.
  - 근로소득(고용 또는 자영업) 수준은 실험집단 4,230유로, 통제집단 4,251유로임.
- 기본소득이 안녕(wellbeing)에 갖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Blomberg et al., 2019)<sup>4)</sup>.
  - 안녕효과 분석의 표본 수는 실험집단 586명, 통제집단 1,047명임.
    -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타인과 사법체계, 정치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음.
    - 타인에 대한 신뢰: 실험집단 6.68점, 통제집단 6.30점
    -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실험집단 6.62점, 통제집단 6.30점
    - 정치인에 대한 신뢰: 실험집단 4.28점, 통제집단 3.80점
  -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자신감을 보임.
    -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 실험집단의 강함(상당히 강함+강함) 58.2%, 통제집단의 강함(상당히 강함+강함) 46.2%
    - 자신의 미래 재정상황에 대한 자신감: 실험집단의 강함(상당히 강함+강함) 42.2%, 통제집단의 강함(상당히 강함+강함) 30.3%
    -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실험집단의 강함(상당히 강함+강함) 28.9%, 통제집단의 강함(상당히 강함+강함) 22.6%
  -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실험집단(55.4%)이 통제집단(46.4%)보다 건강(건강+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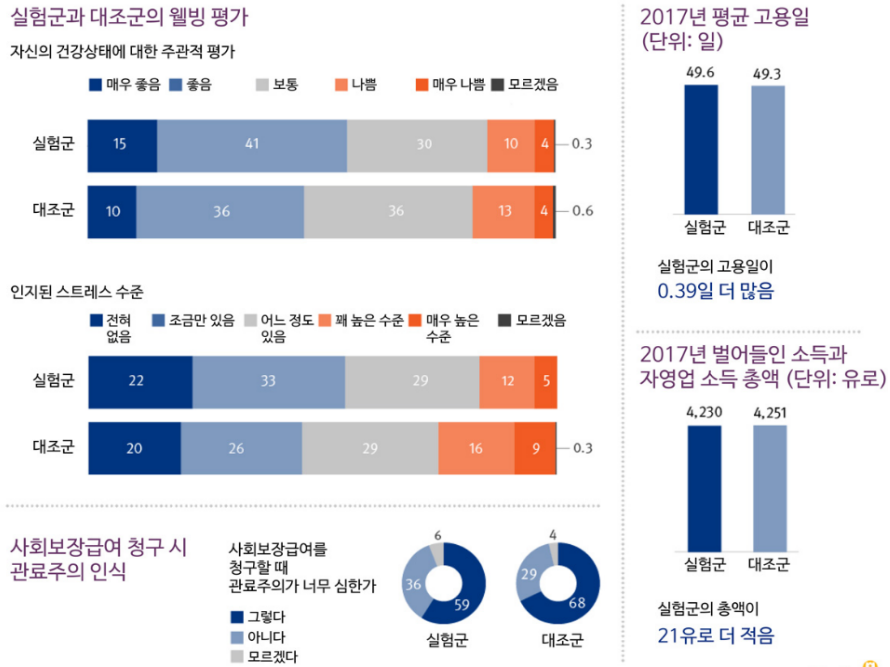
3) 해당 결과는 2017년의 결과임. 2018년 역시 두 집단 간에 근로일수에 큰 차이가 없음.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78일이고, 통제집단은 73일로 나타남. 일견 기본소득 수급집단의 근로일수가 더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의 고용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최한수, 2021).

4) 이하의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임.

- 주관적 집중력 역시 실험집단(66.7%)이 통제집단(55.7%)에 비해 좋음(좋음+매우 좋음)의 비율이 더 높음.
  - 지난 1년 간 이전에는 즐겼던 것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은 24.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33.8%가 그렇다고 응답함.
  - 향후 1년 이내에 고용될 것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의 56.1%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44.8%만이 해당 응답을 함.
  - 주관적 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는 실험집단의 경우 60.0%가 괜찮다(안락함+괜찮음)고 응답하였고 통제집단은 50.9%가 괜찮다고 응답함.
  - 주관적 스트레스의 경우 실험집단은 16.6%가 높다(조금 높음+매우 높음)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25.0%가 높다고 응답함.
  - 지난 2년 동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관료주의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은 58.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통제집단은 67.8%가 그렇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이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관료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의 81.3%는 긍정적인 응답(다소 긍정+매우 긍정)함. 반면 통제집단은 72.4%가 동의함.
  -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역시 실험집단(기본소득 수급 집단)이 통제집단(기본소득 비수급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남.
  - 기본소득과 함께 일자리를 얻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은 89.0%가 동의(다소 동의+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통제집단은 76.1%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이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의 72.2%는 동의(다소 동의+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함. 통제집단은 63.2%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이 핀란드의 사회보장체계의 일부로 영구히 도입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실험집단의 84.8%는 동의(다소 동의+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함. 반면, 통제집단은 75.3%만이 동의함.
- 기본소득 1차년도 추가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이건민, 2019).
-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수준(0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10점: 전적으로 신뢰함)은 실험집단의 경우 6.8점으로 나타났고, 통제집단은 6.3점으로 나타남.
  - 정당, 정치인, 의회에 대한 신뢰를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여 정치에 대한 신뢰수준(0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10점: 전적으로 신뢰함)을 측정한 결과, 실험집단은 평균 4.5점을 보였고 통제집단은 4.0점을 나타냄.

- 사법제도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사법기구에 대한 신뢰수준(0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10점 전적으로 신뢰함)을 측정한 결과, 실험집단은 평균 7.2점을 나타내었고, 통제집단은 6.9점을 나타냄.
-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재정상황에 대한 자신감,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여 자신감과 능력(1점: 자신감이 전혀 없음~5점: 완전히 자신 있음)을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은 평균 3.2점을 보였고, 통제집단은 평균 2.9점을 나타냄.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중 주요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음.



출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2019)

[그림 2-2]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주요 결과

#### 4.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

- 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평가를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긍정적 의견]

- 기본소득으로 인해 저임금 직업도 가질 수 있게 되었음(The Guardian, 2020).
- 기본소득이 실업자가 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음(The Guardian, 2020).
-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자율성이 증진되었음(The Guardian, 2020).
- 프리랜서, 예술가 및 기업가의 경우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느낌(The Guardian, 2020).
- 기본소득으로 인한 심리적인 효과가 크며,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음(The New York Times, 2019).
- (저널리스트 겸 작가) 기본소득으로 인해 구직 대신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음(The New York Times, 2019).
-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 긴장, 우울증, 슬픔 및 외로움을 덜 경험했음(The Jordan Times, 2020).

## [부정적 의견]

- 숙련된 분야에 맞는 일자리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못함(The Guardian, 2020).
- (실험 중 잠깐 취직했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잃은 시민) 기본소득을 잃는 것이 돈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만들음(The New York Times, 2019).

## 제2절 스페인 바르셀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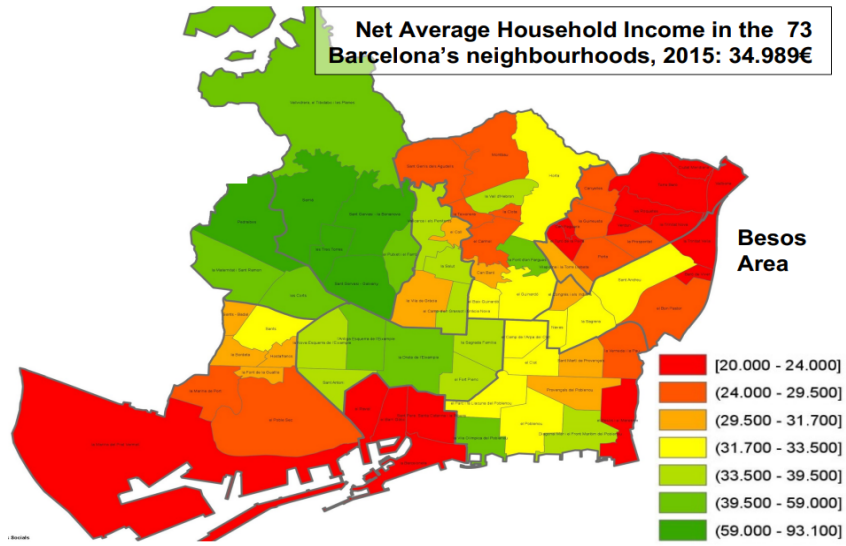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B-MINCOME 프로젝트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까지 바르셀로나시의 저소득 지역에서 진행된 최저소득 보장과 적극적 사회정책을 결합한 프로젝트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된 정책실험임(Laín, 2019a).
- B-MINCOME 프로젝트는 최저소득 보장을 통해 참여자들이 의사결정 기술을 강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자율성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취약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함(Laín, 2019a).
- B-MINCOME 프로젝트는 또한 공·사적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빈곤과 배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참여자들이 그들의 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임(Laín, 2019a).
- B-MINCOME 정책실험은 시민소득(Municipal Inclusion Support: SMI)을 수급하게 되는 실험집단에 2년 간 소득과 가구구성, 기초 생계비 수준에 따라 월 100유로(한화 약 13만 원)에서 1,676유로(한화 약 220만 원)를 지급하고 박탈, 안녕(wellbeing), 재정, 고용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살펴봄(최영준 외, 2020; Laín,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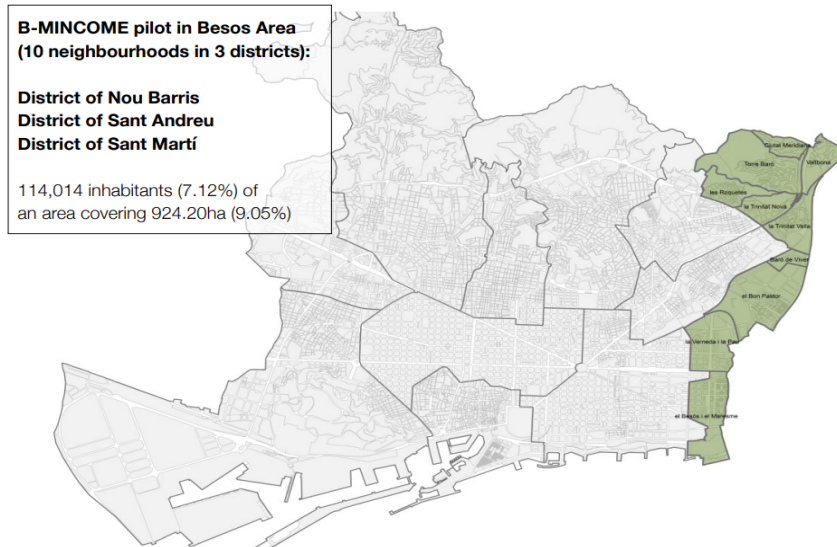
#### 2) 참여 대상

- B-MINCOME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시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인 ‘익스 베소스(Eix Besòs)’의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최소소득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함(최영준 외, 2020; Laín, 2019a).
  - [그림 2-3]을 통해 베소스 지역의 가구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2-4]는 베소스 내 실험 대상 지역을 보여줌.



출처: Lain(2019b)

[그림 2-3]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지역별 가구소득



출처: Lain(2019b)

[그림 2-4] B-MINCOME 실험 지역

- B-MINCOME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Laín, 2019a).
  - 가구구성원은 2015년 6월 30일 이후 바르셀로나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익스 베소스(Eix Besòs)’ 지역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함.
  - 가구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은 정책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2017년 7월 31일 기준 25세에서 60세 사이에 있어야 함.
  - 가구구성원은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함. 만약 이혼이나 사망, 입양 등과 같은 법적 또는 자연적인 인구 변화가 있을 시 시민소득의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525가구의 지원 가구 중 1,527가구가 자격 요건을 충족함. 이 중 층화 및 무작위 배정을 통해 1,000가구를 실험집단으로, 383가구를 통제집단으로 구분함(144가구는 예비적 상황에서 대체를 위해 보존)(Laín, 2019a).

### 3) 급여 수준

- 월 100유로(한화 약 13만 원)에서 1,676유로(한화 약 220만 원) 지급(최영준 외, 2020)
  - 시민소득 급여수준은 가구생활비(가구구성에 따른 기초생활비와 최소주거비의 합)와 가구소득의 차액으로 결정됨(고동현, 2018; Laín, 2019a).

## 2. 실험 설계 및 방법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B-MINCOME 실험은 1,000가구의 실험집단과 383가구의 통제집단을 설정함. 실험모형은 무작위 통제 실험으로 설계됨(Laín, 2019a).
- 실험집단인 1,000가구는 네 가지 조건 유형에 따라 10개의 집단으로 구분되고, 1개의 통제집단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집단으로 정의됨(최영준 외, 2020; Laín, 2019a).
  - SMI 수급을 위한 적극 정책 참여 의무 여부(2개 유형)
  - 추가적인 소득에 따른 SMI 감액 여부(2개 유형)
- B-MINCOME 실험의 참여집단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2-5]와 같음.





출처: 최영준 외(2020).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p.19.

[그림 2-5] B-MINCOME 실험의 참여집단 구성

- 예비적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두 번의 조사가 진행됨(Lain, 2019a).
  - 첫 번째 조사는 2017년 9월(집단 선별 전)에 수행되었고, 두 번째 조사는 2018년 11월에 수행됨.
  - 두 번째 조사의 응답률은 실험집단에서 85%, 통제집단에서 60%로 나타나 사례의 손실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조사 및 분석은 물리적 박탈과 안녕(wellbeing), 재정, 고용, 건강 등의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다음의 분석 전략을 가짐(Lain, 2019a).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적극 정책에 참여 집단 및 비참여 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각 유형별 적극 정책 참여 집단 및 비참여 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소득 제약 집단 및 비제약 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

### 3. 실험 결과<sup>5)</sup>

- 물리적 박탈감 및 안녕(wellbeing)과 관련하여 일반적 안녕, 재정 상태에 대한 안녕, 심각한 물리적 박탈, 에너지 빈곤, 영양 불안정, 주거 불안정을 살펴봄.
  - B-MINCOME의 실험집단은 물리적 박탈과 안녕(일반적 및 재정적 만족도)에서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
  - 그러나 에너지 빈곤과 주거 불안정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음.
- 재정 영역의 효과는 재정적 불확실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응 능력, 가용자원을 활용한 부가적인 소득 창출 욕구를 통해 살펴봄.
  - B-MINCOME의 실험집단은 재정적 불안정에 대한 인식이 감소한 모습을 보임. 이는 적극 정책 비참여 집단과 소득 비제약 집단에서 특히 두드러짐.
  - 예상치 못한 지출 능력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함. 이와 같은 결과는 SMI가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임.
  - 고용이 아닌 다른 가용자원을 이용한 소득 창출 욕구에 대해서는 실험집단의 모든 하위 집단에서 감소된 결과를 보임.
- 고용 영역의 효과는 노동시장 참여, 전일제 일자리 참여, 구직활동, 창업 인식, 훈련참여, 가구원의 취업을 중심으로 살펴봄.
  - SMI의 수급은 실험집단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제집단에 비해 감소시킴. 다만, 그 폭이 매우 작음.
  - 노동에 대한 억류인 효과는 유형별 정책 참여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이는 정책 참여의 조건을 갖는 하위 실험집단이 구직을 위한 시간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나타난 이른바 잠김효과(lock-in effect)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 취업, 적극적 구직활동, 창업 의지 또는 훈련 참여 등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가구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취업할 확률은 실험집단의 모든 하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함.
- 건강 영역의 효과는 주관적 건강, 정신적 질환의 발병 위험, 수면의 질로 측정함.
  - 주관적 건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5) B-MINCOME 실험의 결과는 Lain(2019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함.

-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정신적 질환의 발병 위험이 약 9.6점 감소함. 모집단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점(통제집단의 경우 83%)을 고려하였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 보건서비스의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수면의 질 또한 실험집단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정신적 질환과 수면 질에 대한 결과는 기본적 욕구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완화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효과 분석은 교육과 아동 건강, 16세 이상 아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살펴봄.
- 교육 및 아동 건강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지 못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주의가 필요함. 그 이유는 분석 시점에 바르셀로나시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바르셀로나 교육 협력단(Barcelona Education Consortium)으로부터 가용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지역사회 차원의 효과 분석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사회적 여가활동 참여, 사회적 활동 참여, 가구의 과업 달성으로 살펴봄.
- 적극 정책 참여 집단에서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모든 유형의 실험집단에서 사회적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시민·사회적 활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0점 척도를 이용한 삶의 만족도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27% 증가함(5점에서 6.45점으로 증가).
  - 적극 정책 중 직업 및 고용 프로그램 대상 집단은 전체 평균(약 27%)보다 평균 9.5% 더 높은 행복감을 보임.
  - 소득 제약 SMI 수급 집단은 비제약 SMI 수급 집단보다 평균 5% 낮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나타냄.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님.

#### 4.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

- B-MINCOME 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을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긍정적 의견]

-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면 앞서 나가기 어려울 것임. 우리가 자녀의 음식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다면, 이력서를 보낼 수 있는 곳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Sinpermiso, 2019).
- 적어도 이것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임(20minutos, 2018).

##### [부정적 의견]

- B-MINCOME으로 인해 생활고를 경감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이보다는 이들과 함께 한 적극적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었음(Evening Standard, 2020).

### 제3절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네덜란드의 사회부조 수급은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음(Verlaet, de Kruijk, Rosenkranz, Groot, & Sanders, 2020a).
  -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고, 제공되는 일자리를 수락해야 함. 또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
  - 수급자는 사례관리자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의무 조건을 따르지 않을 시 급여액이 감소되는 제재가 따를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부 접근이 수급자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재 중심의 접근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최한수, 2017).
- 따라서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정책실험은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월 960유로를 지급하면서 수급자를 유급노동이나 다른 유형의 사회활동으로 유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실시됨(노정호, 2018; Verlaet et al., 2020a). 즉, 네덜란드의 정책 실험은 근로동기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임(서정희, 2019).

##### 2) 참여 대상

- 참여대상은 위트레흐트(Utrecht) 지역의 사회부조 수급자 총 752명임. 해당 인원은 자발적으로 지원하였고, 무작위 할당을 통해 네 개의 집단으로 나뉨(Verlaet et al., 2020a).

##### 3) 급여 수준

- 월 960유로 지급
  - 실험집단 유형 중 노동시장 유인 집단은 유급 노동을 통한 소득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2. 실험설계 및 방법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실험은 기존 사회부조 수급자를 네 가지 유형의 실험집단 (통제집단 포함)으로 구분하고 16개월 간 상이한 조건을 부여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임(노정호, 2018; Verlaet et al., 2020a; 2020b). 각 집단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통제집단(n=188): 실험에 참여하지만 현재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회부조 수급자
  - 면제집단(n=189): 구직활동이나 일자리 수락과 같은 의무조건에서 자유로운 집단으로 지역에서 제공하는 활동 참여 역시 자율적으로 선택
  - 추가 지원집단(n=188): 의무규정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전담 사례관리자를 통한 추가적인 지원 및 관리, 부가적인 프로그램 등 제공
  - 노동시장 유인 집단(n=187): 의무규정은 적용되나 유급 노동을 통해 획득하는 월 급여의 50%(최대 202유로)를 실험 기간(16개월) 동안 공제받을 수 있음.
- 실험의 종속변수는 재취업률, 기술습득, 부채(debt), 주관적 행복감, 인지능력, 건강상태, 스트레스 등임. 변수의 측정은 행정자료(재취업률, 소득, 부채 등)의 이용과 설문조사(건강, 안녕, 만족도 등),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짐(노정호, 2018; Verlaet et al., 2020b).
  - 행정자료는 위트레흐트시의 등록 자료와 통계청(Centraal Bureau voor de Statistiek)의 자료를 이용함.
  - 설문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짐. 2018년 3월 이전에 기초선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9년 1월(실험 개시 후 8개월)과 2019년 9월(실험 개시 후 16개월)에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설문 조사가 진행됨.

## 3. 실험 결과<sup>6)</sup>

- 세 가지 개입 유형 모두에서 노동 참여가 증가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 수급자에 대한 자율성 증대(의무조건의 면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재정적 유인기제는 단순 직업(small job)과 같은 제한적인 결과를 보임.

6) 실험결과의 내용은 Verlaet 등(2020)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함.

- 수급자의 의무조건 면제는 정규직의 일자리를 얻는 기회를 증가시킴.
- 면제집단과 추가 지원집단은 특히 저학력 집단에서 효과를 나타냄.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추가 지원 집단에서만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 사회참여와 건강과 안녕(wellbeing), 만족도, 재정상태 등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면제집단과 추가 지원집단에서 수급자는 자신의 구직 능력에 대한 자신감(자기 효능감)을 긍정적으로 보임.
  - 추가 지원집단의 경우 연구 중간단계에서 관리 기관(welfare agency)에 의한 서비스를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해당 효과가 연구 종료까지 이어지지는 않음.
- 인터뷰 결과, 면제집단과 추가 지원집단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참여한 집단의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인식함.
  - 추가 지원집단 참여자들은 더 많은 지원과 수용을 경험하고, 면제 집단은 일자리(노동)로 복귀하는 방식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경험함.

#### 4.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의 시민들은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보임.

##### [긍정적 의견]

- 기본소득은 관료주의가 훨씬 적게 작용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NU.nl, 2019).
- 기본소득으로 인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할 수 있어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사람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NU.nl, 2019).
-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로를 그만두지 않는 한 기본소득은 효과가 있을 것임(NU.nl, 2019).

##### [부정적 의견]

-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음(NU.nl, 2019).
- 기본소득으로 인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음(NU.nl, 2019).

## 제4절 캐나다 온타리오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캐나다 온타리오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하여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교육, 주거, 고용, 건강 등의 개선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함(Ontario, 2021).
  - 기준 소득은 1인 가구일 경우 연간 34,000달러 미만, 부부일 경우 연간 48,000달러 미만을 의미함.
- 온타리오의 정책실험은 2017년 4월부터 3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지만, 2018년 7월 정책실험을 중단함. 단, 기본소득은 2019년 3월까지 지급함.

#### 2) 참여 대상

- 캐나다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대상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로, 최소 12개월 이상 기본소득 실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준 소득 미만의 시민임(Ontario, 2021).
  - 실험지역: Hamilton, Brantford, Brant County 등
  - 참여를 위한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연간 34,000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에는 48,000달러 미만임.

#### 3) 급여 수준

- 급여는 중위소득 50%를 의미하는 저소득 기준선(Low Income Measure: LIM)의 75%에 기초하여 1인 가구일 경우 연간 16,989달러, 부부일 경우 연간 24,027달러를 지급함(Ontario, 2021).
  - 지급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 시 근로소득 1달러 당 0.50달러씩 감액하여 지급함. 이와 함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한 달 최대 500달러를 추가 지급함.



## 2. 실험설계 및 방법

- 정책 실험 참여자 중 4,000명은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집단으로, 2,000명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배정함. 다만, Lindsay 지역 거주민은 지역 단위의 기본소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통제집단으로 할당하지 않음 (Ontario, 2021).
- 기본소득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식량 안정성(food security), 스트레스 및 불안, 정신건강, 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주거 안정성(housing stability), 교육 및 훈련, 고용 및 노동시장 참여 등을 살펴봄(Ontario, 2021).
- 기본소득과 다른 제도의 급여 지급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Ontario, 2021).
  -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과 온타리오 아동수당(Ontario Child Benefit)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실험 기간 동안 해당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또는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급여 지급자는 1달러당 1달러가 차감된 기본소득을 받게 됨.
  - 사회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조 정책(Ontario Works) 또는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의 대상자에서 벗어나야 함. 다만,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부조 정책(Ontario Works)의 대상 자격을 철회한 경우 의약품 지원(Ontario Drug Benefit)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음. 장애인 지원 역시 의약품 지원과 치과 지원(dental benefit)은 받을 수 있음.

## 3. 실험 결과

- 캐나다 온타리오의 정책실험 결과는 두 가지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두 보고서 모두 정책실험의 중단에 따라 실험집단(기본소득 지급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1) 기본소득 캐나다 네트워크(Basic Income Canada Network)등의 보고서<sup>7)</sup>

- 기본소득 지급자 424명 대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사를 수행함.

7) 이하의 결과는 기본소득 캐나다 네트워크(Basic Income Canada Network)와 온타리오 기본소득 네트워크(Ontario Basic Income Network)의 보고서(2019)를 바탕으로 함.

○ 고용 관련 결과

- 기초선 조사에서 35%의 응답자가 최근 4주 내에 고용상태에 있었다고 응답함. 반면 이후 조사에서는 44.5%의 응답자가 고용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본소득에 따른 근로활동 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변화 없음'이 32.8%로 나타났고, '학업 활동을 하거나 훈련 등의 참여'가 32.5%, '근로활동으로의 복귀'가 20.2%의 비율을 보임.

○ 영양 관련 결과

- 기초선 조사에서 48.4%의 응답자가 심각한 식량 불안정성을 경험함. 기본소득을 통해 27.8%는 푸드뱅크 이용을 중단하였고, 55.2%는 원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74.3%는 건강식품을 구입할 수 있었음.

○ 재정 관련 결과

- 기초선 조사에서 소득의 약 55.1%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함. 지난 12개월 동안 고지서(bills) 납부를 2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500달러 이상의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 발생할 경우 43% 이상이 해당 지출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을 통해 고지서(bills) 납부가 용이해졌다는 응답이 82.9%,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걱정 완화가 64.3%, 저축을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50.0% 등으로 나타남.

○ 미래 계획 관련 결과

- 기본소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는 응답이 58.5%, 운동(체육시설 등록 등)을 시작하였다는 응답이 40.1%, 교육에 대한 시간 투자가 27.8%, 창업 또는 사업장의 확대 등이 11.4% 등으로 나타남.

○ 이동 관련 결과

- 교통비용에 대한 걱정 완화 응답이 74.9%로 나타났고,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54.9%, 친구 및 가족과의 더 많은 접촉 가능성이 52.2%로 나타남.

○ 건강 및 자기 돌봄 관련 결과

- 기본소득을 통해 건강과 관련하여 더 적은 걱정을 하였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고, 더 나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였다는 응답이 40.9%로 나타남. 또한 미루었던 치과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이 31.8%의 비율을 보임.

○ 사회적 통합 관련 결과

- 응답자의 88.1%는 기본소득 실험 기간 동안 더 낮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였고, 72.9%

는 더 낮은 우울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52.0%와 57.2%는 각각 친구 및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함. 더불어 응답자의 60.8%는 기본소득을 통해 존엄감을 경험하였고, 40.4%는 더 많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함.

#### ○ 기본소득 실험 중단 관련 결과

- 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중단에 따라 응답자의 80.4%는 이전의 문제 상황을 다시 경험할 것 같다고 응답하였고, 61.0%는 미래 계획을 취소하거나 수정했다고 응답함.

## 2) 맥마스터 대학교(McMaster University) 등의 보고서<sup>8)</sup>

#### ○ 기본소득 수급자 217명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수행함.

#### ○ 건강 관련 결과

-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79.4%는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정신건강은 82.8%의 응답자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함.
- 스트레스와 불안의 빈도는 86.1%의 응답자가 완화되었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83.4%는 기본소득 수급 전후로 우울감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78.4%의 응답자가 분노의 감소를 경험함.
- 82.7%의 응답자는 기본소득 실험 전에 비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74.1%는 기본소득 실험 참여에 따라 초과치료를 위한 비용 지불이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 실험 참여 이전에 심리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인원 중 50.4%는 실험 참여에 따라 심리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 고통 경험 빈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8%는 기본소득 실험 전에 비해 고통을 경험하는 빈도가 줄었다고 응답하였고, 33.5%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응답함.
- 피로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71.3%는 기본소득 실험 전에 비해 피로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흡연 및 음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실험 전과 비교하여 실험 기간 동안 금연을 하였다는 응답이 16.9%이었고, 흡연을 줄였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남. 음주의 경우에는 실험 전과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45.6%, 알코올 소비가 줄였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남.
- 응답자의 73.7%는 기본소득 실험 기간 동안 신체적 활동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8) 이하의 결과는 McMaster University를 중심으로 수행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함(Ferdosi, McDowell, Lewchuk, & Ross, 2020).

- 80.8%의 응답자는 기본소득 실험 전에 비해 이후에 자신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 실험 참여 기간 동안 응답자의 68.6%는 참여 전에 비해 식사를 거르는 빈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67.8%는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면서 푸드뱅크 이용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85.2%는 기본소득 실험 기간 동안 영양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재정 관련 결과

- 응답자의 59.7%는 기본소득 수급 전에 비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 실험 참여자의 75.3%는 재정적 긴급 상황과 관련하여 실험 전보다 잘 준비되어 있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83.9%는 기본소득 실험 전에 비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함.

○ 사회적 관계 관련 결과

- 65.7%의 응답자는 기본소득 수급 전에 비해 가족관계의 질이 더 나아졌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48.1%는 기본소득 이전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75.7%는 기본소득 실험 이전에 비해 과외활동 참여 빈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 실험 전에 비해 실험 기간 동안 69.0%의 참여자는 가족 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함.
- 참여자의 74.4%는 기본소득 실험 기간 동안 타인과 교체하는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72.6%는 개인적인 흥미 활동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응답함.

○ 고용 관련 결과

- 응답자의 78.9%는 유급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동기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61.5%는 기본소득 수급 전에 비해 구직활동이 더 용이해졌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 수급 6개월 전 미취업상태에 있던 응답자의 18.2%는 기본소득 실험 기간 동안 취업 상태로 전환됨.
- 실험 전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응답자 중 37.5%는 기본소득 수급 이후에 시간당 임금이 더 많아졌다고 응답함.
- 실험 전후 지속적으로 취업상태였던 응답자의 26.9%는 기본소득 실험 기간 동안 고용안정이 더 나아졌다고 응답하였고, 62.4%는 변화 없으므로, 10.8%는 불안정해졌다고 응답함.

○ 기본소득 실험 중단 관련 결과

- 기본소득 실험 중단이 참여자의 미래 계획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95.5%는 미래 계획을 보류하거나 중단해야 했다고 응답함.

#### 4.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

- 온타리오 시민들은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함.

##### [긍정적 의견]

- 기본소득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주었음(Bright Magazine, 2018).
- 기본소득은 나를 더 나은 어머니로 만들고, 내 에너지 중 일부를 일상적인 일이 아닌 가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음(Bright Magazine, 2018).
- 기본소득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덜어줌으로써 정신 질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었음(The Guardian, 2018).
-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재정적 향상으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위해 먼 가족을 방문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음. 또한 더 건강하게 먹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치과 진료를 계획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을 속고하게 함(CNBC, 2017).
- 기본소득은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함. 내가 더 사교적이라고 느끼게 됨(CNBC, 2017).

##### [부정적 의견]

-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되며,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음(CNBC, 2017).
- 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결국 다른 혜택을 줄이게 될 것임(CNBC, 2017).

## 제5절 미국 스톡턴<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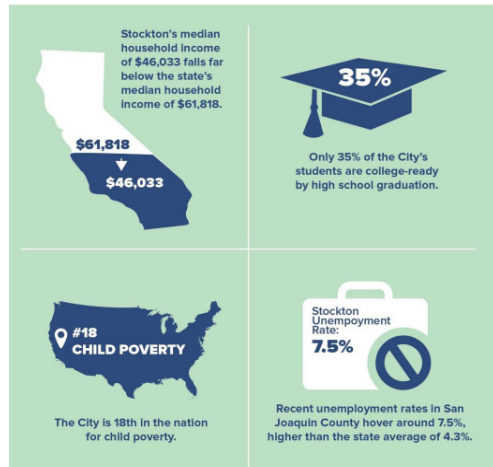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미국 스톡턴(Stockton)시는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 있는 도시임([그림 2-6] 참고). 스톡턴 시의 중위 가구소득은 46,033달러로 주(state) 중위 가구소득(61,818달러)에 비해 매우 낮음. 또한 35%의 학생만이 대입 준비를 하고 아동 빈곤 수준은 미국 전체에서 18번째로 높음. 실업률 역시 주(state) 평균 4.3%보다 높은 7.5%를 기록함(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2019, [그림 2-7] 참고). 이처럼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은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필요도를 높임.



출처: County Health Rankings & Roadmaps(2020)



출처: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2019)

[그림 2-6] 캘리포니아 스톡턴의 지리적 위치

[그림 2-7] 스톡턴시의 사회경제적 상황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톡턴(Stockton)시는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4개월 동안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을 지급하는

9) 이하의 내용은 스톡턴 보장소득 실험(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 공식 홈페이지와 Martin-West 등(2018)과 West 등(2021)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함.

정책실험을 진행함.

- 해당 실험은 스톡턴시 내 중위소득 46,033달러 이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자에게 월 500달러를 지급하여 빈곤이 개인의 특성이 아닌 현금의 부족에서 기인하는지를 살펴보고 소득 지급이 빈곤퇴치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자 함.

## 2) 참여 대상

- 미국 스톡턴의 정책실험의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먼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스톡턴시에 거주해야 함. 그리고 거주지역의 중위소득이 46,033달러 (스톡턴시의 중위 가구소득) 이하이어야 함.
  - 참여 대상의 조건 중 소득 조건은 개인에게 부과된 조건이 아님. 따라서 정책 실험 참여자가 46,033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음.

## 3) 급여 수준

- 월 500달러 정액 지급

## 2. 실험설계 및 방법

- 미국 스톡턴의 정책실험은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으로, 대상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함.
- 실험집단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
  - 상기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서 인구조사에서 대표되는 인구 비율에 따라 주소를 추출함. 해당 주소의 4,200가구에 실험 참여 안내 우편 발송 후 가구에서 참여 여부와 참여자를 결정하게 함.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에 인구사회학적인 세부사항을 웹에 기초한 동의서에 작성하도록 요청함.
  - 동의서 작성을 완료한 가구 중 125가구를 보장소득을 받는 실험 집단으로 배정함. 이 중 100가구는 주요 연구 표본으로 설정하고, 25가구는 인터뷰 대상 가구로 선정함. 남은 5가구는 추후 실험집단의 이탈을 대비함.

- 통제집단은 200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구성함.
- 본 정책실험 연구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함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보장소득이 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소득 변동성이 변화와 심리적 건강 및 신체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 보장소득이 미래에 대한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
- 연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됨.
  - 설문조사와 1:1 반구조화 인터뷰 병행
  -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순차적 진행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참여형 행동 연구(PAR: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진행
-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수행됨.
  -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및 가구 소비에 대한 데이터를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함.
  - 기초선 조사는 2018년 12월 실시 완료함.
  - 설문 구성은 소득 변동성, 심리적 고통 및 신체 기능 변화, 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인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소득 변동성 측정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SMS를 통한 자기보고 형식으로 매월 측정함.
    - 신체적 기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측정은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함. 먼저 정량적 조사는 케슬러 검사(The Kessler 10)와 SF-36 검사(The Short Form Health Survey 36)를 통해 6개월마다 측정하였고, 정성적 조사는 심층면접을 활용함.
    - 고용 및 400달러 상당의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설문조사를 통해 자기 보고 형식으로 6개월마다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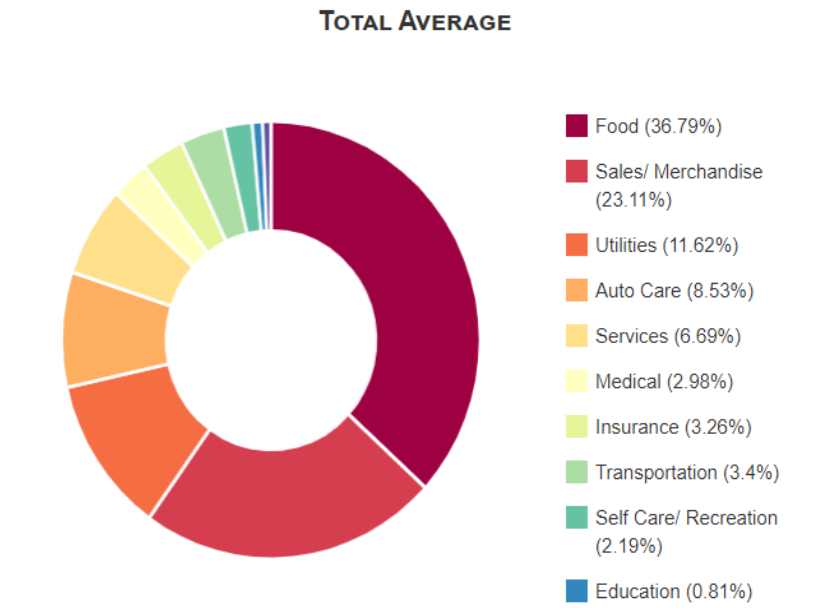
### 3. 실험 결과

- 기본소득의 1차년도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정책실험의 결과는 소득변동성, 안정적 일자리(full-time job), 정신건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변동성 측면에서는 가계 안정과 미래 계획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 실험집단은 월별 46.4%의 소득 변동을 경험하였고, 통제집단은 월별 67.5%의 소득변동을 경험함.
  - 예상치 못한 비용의 지출능력과 관련하여 실험집단의 경우 실험 전 25%만이 지출 능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1년 후에는 52%로 증가함.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해당 응답 비율이 25%에서 28%로 3%p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 부채 상황은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실험집단의 경우 52%에서 62%로 10%p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48%에서 44%로 4%p 감소함.
- 고용 측면에서는 실험집단의 경우 실험 전 28%이었던 전일제(full-time employment) 근로자 비율이 1년 후에는 40%로 증가함. 통제집단은 단지 5%p 증가에 머물 (32% → 37%).
- 정신건강 측면에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불안과 우울감이 감소됨.
- 불안 및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된 케슬러 검사(The Kessler 10) 결과, 기초선 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1.28)과 통제집단(M=20.72)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년 후에는 두 집단 간에 다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실험집단: M=18.43, 통제집단: M=21.15).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프로그램 전후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경우 1년 동안 유의한 변화를 보였지만,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전반적인 건강 및 안녕(wellbeing)은 기초선 조사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다만, 정서적 건강은 1년 후에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임.
- 정서적 건강, 피로감(energy over fatigue), 정서적 안녕, 통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 간 직불카드의 월별 지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월 평균 식료품 구매 36.9%, 생필품 구매 22.7%, 공과금 납부 11.3%, 차량 정비 및 유류비 8.8%로 나타남.
  - 담배와 술 구입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1년 동안 계좌 금액 중 약 40%가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현금 인출로 확인되는데 이는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 및 지출로 정리됨.
    - 재정 관리 단일화 등의 사유로 기존 거래 금융기관으로 이동
    - 집세 또는 공과금 등의 청구서 지불

- 대부업체와 같은 타인 또는 타 업체로의 자동 인출 방지
- 지출 내역의 기간을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확장한 결과 역시 상기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그림 2-8]을 통해 해당 기간의 지출 항목별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식료품비 36.8%, 생필품비 23.1%, 공과금 11.6%, 차량 정비 및 유류비 8.58% 등임(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Dashboard, 2022).



\* Each month thus far, less than 1% of total money tracked has been spent at alcohol and tobacco retailers.

출처: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Dashboard(2022)

[그림 2-8] 지출 항목별 비중(2019.1. ~ 2021.1. 평균)

#### 4.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

- 보장소득 실험에 대한 스톡턴 시민의 생각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긍정적 의견]

- 기본소득은 숨을 쉴 수 있는 것과 같음(NPR, 2021).

- 손주들을 위한 기저귀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적절한 양의 여성 위생 용품을 구입할 수 있었음 (NPR, 2021).
- 기본소득으로 인해 자신을 위한 기회를 잡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NPR, 2021).
- 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해 시간제에서 전일제 고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나는 더 나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으며,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고 실제로 지역 사회를 돕고 있기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음(CBS News, 2021).
- 기본소득의 도움으로 정규직 외의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장애 아동과 함께 할 수 있었음(The Washington Post, 2021).

#### [부정적 의견]

-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시장(Michael Tubbs)의 야망에 대한 지지를 늘리기 위해 사용되었음 (The Washington Post, 2021).

## 제6절 독일 베를린<sup>10)</sup>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기본소득 논의가 이념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짐. 따라서 이번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함.
-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이 정책화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전제로 함. 따라서 이번 정책실험에서도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살피는 것에 초점을 맞춤.
  - 효과성: 기본소득이 개인 및 집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야 함<sup>11)</sup>.
  - 자원 마련의 현실성: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자원 마련이 가능해야 함.
  - 근로유인 유지: 유급 고용에 대한 유인기제를 지나치게 줄이지 않아야 함.
- 독일 베를린 실험은 초기에 세 가지 유형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에는 두 번째 연구(연구-2)가 제외되고 기존의 연구-3이 연구-2가 되어 두 가지 유형으로 설계 및 진행되고 있음<sup>12)</sup>.
  - 연구-1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계획됨. 연구-1의 목적은 상기의 기본소득이 갖춰야 하는 세 가지 요건 중 재정마련의 현실성은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개인과 집단에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임.

10) 이하의 내용은 베를린 기본소득 프로젝트(Pilotprojekt Grundeinkommen)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함.

11) 기본소득의 효과를 단순히 유급 고용 측면에서만 분석하지 않고, 참가자의 행동과 감정, 가치관 변화, 인지 능력, 시간 활용 등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 살펴보고자 하고 있음. 베를린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연구진 중 Susann Fiedler은 기본소득이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보장의 측면에서는 실업수당인 하르츠 IV(Hartz IV)가 해당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만을 기본소득의 목적으로 보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느끼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Pilotprojekt Grundeinkommen Team, 2021).

12) 기존의 연구-2는 월 소득이 1,200유로 미만인 대상자에게 최대 월 1,20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이었음. 이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지원소득의 액수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이 갖는 무조건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세 번째 연구 유형(연구-3)이 해당 부분을 포괄할 수 있고, 연구-2가 가질 수 있는 소득 역전현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연구 유형을 제외한 것으로 보임.

- 연구-2는 연구-1을 통해 기본소득의 효과가 상당히 입증될 경우 2024년부터 실시될 예정임. 해당 실험의 목적은 최적의 기본소득 모형과 기본소득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현실적인 재정 마련 모형 등을 살피는 것임.
- 정책 실험의 재원은 약 20만 명이 후원하는 기부금이며, 기부금은 비영리 협회인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에서 처리함.
  - 기부금 후원 시 실제 기본소득에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반드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함.
- 베를린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은 이번 실험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개인의 삶 전반에 걸친 행동과 태도의 변화
  - 개인 차원에서의 노동 공급, 임금 및 직업 선택
  - 기본소득의 효과가 그것의 양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

## 2) 참여 대상

- 현재 진행 중인 정책실험(연구-1)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참가 신청 대상자는 독일에 거주지가 있는 만 18세 이상의 인원으로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으로부터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임.
  - 2백만 명이상이 신청함.

## 3) 급여 수준

- 월 1,200유로(한화 약 168만 원) 지급(연구-1 기준)

## 2. 실험설계 및 방법

- 총 2백만 명 이상의 참가자 중 21세에서 40세까지의 연령과 월 1,200유로에서 2,600유로 사이의 가처분소득(normalerweise zwischen 1,200 und 2,600

Euro netto monatlich zur Verfügung haben)을 가진 1인 가구가 선정됨 (Heinze & Schupp, 2022)<sup>13)</sup>, 층화표본 추출을 통해 122명을 실험집단으로, 1,378명의 유사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함.

- 실험집단(122명)은 2021년 6월부터 3년 간 월 1,200유로(한화 약 168만 원)를 지급하며<sup>14)</sup>, 6개월마다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해야 함. 만약 설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됨.
  - 기본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실업수당 1, 실업수당 2, 주거수당,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실험집단 122명 중 108명은 실험기간(3년) 동안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이나 참여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음. 다만, 나머지 14명은 해당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음.
  - 실험집단은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모발 채취와 심층 면접에 참여할 수 있음. 모발 채취는 안녕(wellbeing)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3회 측정함. 참여자는 측정 1회마다 30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3회 모두 참여 시 60유로를 추가로 받게 되어 총 150유로를 받을 수 있음.
- 비교집단(1,378명)은 기본소득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문조사에는 참여할 수 있음.
  - 비교집단의 설문조사 참여는 의무조건은 아니나, 참여에 대한 보상금으로 회당 10유로를 받을 수 있고 7회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할 경우 30유로를 추가로 받아 총 90유로를 받을 수 있음.
  - 비교집단은 연구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수당과 참여군(실험집단) 포함과 같은 보상(incentive)을 가짐.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참여하는 설문조사의 내용은 고용, 시간 사용, 소득 및 자산, 소비 행동, 태도 및 가치, 인지능력, 건강 및 안녕(wellbeing) 등임.

13) 초기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의 참여 조건에서 연령과 소득 조건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보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확인이 어려움. 또한 실험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개인별로 지급될 경우 1인 가구와 다(多)인 가구 간의 비교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14) 기본소득 지급액인 1,200유로는 빈곤선에 근거하여 설정됨(2018년 독일 빈곤선: 1,135.67유로).

### 3. 추가 실험설계

- 상기한 바와 같이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은 단일 유형의 것이 아니고 추가 실험이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추가 실험(연구-2)은 현재 진행 중인 정책실험(연구-1)에서 기본소득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입증되어야 추진될 예정임(2024년 예정).
- 연구-1에 지원하였지만 실험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구-2에 지원할 수 있음.
- 연구-2에서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모형에 기초하여 모의 과세가 포함된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설계됨.
  - 모든 참가자에게 1,200유로에 대한 수급권이 부여됨. 다만, 기본소득 외의 소득에 50%의 모의 세금을 적용하여 이와 기본소득(1,200유로) 간의 차액을 지급함.
  - 따라서 기본소득 이외의 소득이 2,400유로 미만일 경우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수급할 수 있음.

### 4.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

-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은 다음과 같음.

#### [긍정적 의견]

-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문화노동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Mein Grundeinkommen e.V., 2022)
- 기본소득으로 인해 압박감을 덜 느낌. 예를 들어, 나는 이 도시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점은 나에게 안정감을 줌(Frankfurter Rundschau, 2021).
- 기본소득 수급으로 인해 치통과 두통이 사라짐. (그의 치과 의사는 그러한 증상이 스트레스와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함)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에 접근하고 더 편안하다고 느끼며,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훨씬 덜 아픔(Frankfurter Rundschau,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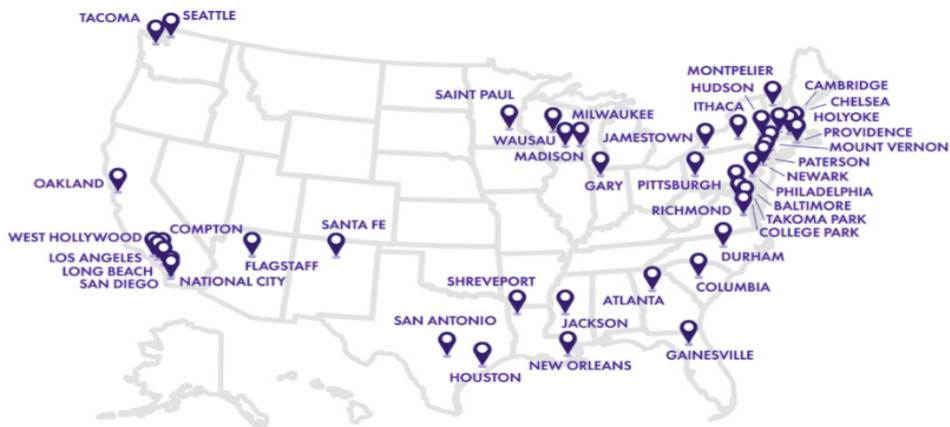
#### [부정적 의견]

- 기본소득은 연간 약 1.2조 유로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성실 납세자가 주로 고통 받게 됨. 또한 장기적으로 근로의욕을 감소시키고 독일로의 대규모 이민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지 않음(Focus Online, 2021).

## 제7절 미국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네트워크<sup>15)</sup>

### 1. 개요

-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턴(Stockton)시에서 수행되었던 경제적 역량강화 입증(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SEED)프로젝트 이후 2020년 6월에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 MGI) 네트워크가 창립됨.
- 2022년 7월 기준 84명의 시장이 해당 네트워크에 가입해 있으며 이 중 43개 도시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보장소득 실험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그림 2-9] 참고).
  - MGI에서 정의하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은 월 단위로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금 급여로, 근로와 같은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는 무조건적 급여의 특성을 가짐.
  - 보장소득의 목적은 현존하는 사회안전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데 있으며, 인종적·젠더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출처: MGI 홈페이지(<https://www.mayorsforagi.org>)

[그림 2-9] MGI 참여 도시 현황

15) 이하의 내용은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Mayors for a Guaranteed Income)’의 홈페이지(<https://www.mayorsforagi.org>) 내용을 바탕으로 함.



- 보장소득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 다음의 구별되는 특성을 가짐.
  - 첫째, 보장소득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함.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다름.
  - 둘째, 보장소득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지 않고 정액을 지급함. 기준선과 수급자의 소득 간의 차액을 기초로 하여 급여액이 정해지는 부의 소득세와 이 점에서 결이 다름.

## 2.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인식

- 미국의 보장소득 정책실험은 다른 국가 및 도시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짐. 따라서 미국 각 도시의 정책실험에 대한 시민 의견을 각 도시별로 살피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함. 언론을 통한 시민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긍정적 의견]

- 보장소득 프로그램 참여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쁨(City of New Orleans, 2022).
-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보장소득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임(CBS Los Angeles, 2022).
- 이전에 실업 지원과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에 의존할 때는 신청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안정했음. 그러나 보장소득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고,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되었음(CBS News, 2022).
- 보장소득은 아이와 공과금, 식료품 등 모든 것에 도움이 될 것임(TMJ4 News, 2022).

### [부정적 의견]

- 보장소득에 반대하지 않지만, 120~150가구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함(TMJ4 News, 2022).
-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보장소득을 위한 시장들’ 네트워크의 실험 중 대표적인 두 사례(LA시와 LA 카운티의 실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제7-1절 미국 LA<sup>16)</sup>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LA시(City of Los Angeles) 실험의 정식 명칭은 ‘보장된 기본소득: 로스앤젤레스 경제적 지원 실험(Basic income Guaranteed: Los Angeles Economic Assistance Pilot)’임.
- LA시의 실험은 재정적 불안정성과 빈곤을 경험하는 이들이 본인이 속한 가구의 욕구를 자신의 판단 하에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긴급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적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함.
- LA시 실험은 다음의 여섯 가지 목표를 가짐.
  - 빈곤 및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을 받은 이들에게 즉각적인 금융 지원
  - 직접적인 현금 지급
  - 시(市)의 직접적 현금 지원을 제약하는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개혁 추진
  - 세대 차원의 부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산과 기회 증진
  - 보장소득에 대한 효과성(efficacy)을 평가하기 위한 엄격한 실험 수행
  -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 LA의 사회적 안전망과 대상자(families)의 연결

#### 2) 참여 대상

- 참여 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그림 2-10] 참고).
  - LA시에 거주
  - 18세 이상
  - 최소 1명 이상의 피부양 아동(18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의 학생)이 있거나 임신상태

16) 이하의 내용은 LA시의 보장소득 실험 홈페이지(<https://bigleap.lacity.org>)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소득수준(근로소득과 공적 현금급여 등을 포함한 연간 세전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
-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의료적 어려움 경험



출처: Mid City Neighborhood Council(2021)

[그림 2-10] LA시 보장소득 정책실험 참여 조건

### 3) 급여 수준

- 월 1,000달러 정액 지급

### 2. 실험설계 및 방법

- 지원자 중 약 3,2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실험집단을 구성함.
  - 실험집단에는 12개월 간 매월 1,000달러를 정액 지급함.
- 통제집단 역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약 3,700명으로 구성됨.
  - 통제집단에는 현금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 다만, 3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사당 30달러 상당의 보상(기프트 카드)을 받음.

## 제7-2절 미국 LA 카운티<sup>17)</sup>

### 1. 정책 개요

#### 1) 추진 목적

- LA 카운티(Count of Los Angeles) 정책실험의 정식 명칭은 ‘숨을 쉬다: LA 카운티의 보장소득 프로그램(Breathe: LA County’s Guaranteed Income Program)’임([그림 2-11] 참고).



출처: Arleta Neighborhood Council(2022)

[그림 2-11] LA 카운티 보장소득 프로그램 안내문

- 해당 실험은 2022년 봄 또는 여름부터 LA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1,000명에게 사용처나 근로조건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3년 간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됨. 실험을 통해 보장소득이 경제적 안정과 건강, 안녕(well-being)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

17) 이하의 내용은 LA 카운티의 보장소득 실험 홈페이지(<https://ceo.lacounty.gov/pai/breathe>)와 County of Los Angeles(202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2) 참여 대상

- 참여 대상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18세 이상
  - 가구소득이 LA 카운티의 중위소득 이하<sup>18)</sup>
  -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 경험
  - 타 보장소득 실험 미참여

## 3) 급여 수준

- 월 1,000달러 정액 지급

## 3. 실험설계 및 방법

- 지원자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1,000명의 실험집단과 2,000명의 통제집단을 구성함.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구성 전에 전반적인 건강과 안녕(well-being) 상태를 조사하는 기초선 조사가 진행됨.
- 집단 구성 후 각 참가자는 6개월 단위로 6번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설문조사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님. 다만, 설문조사 참여당 30달러의 보상(기프트 카드)이 제공됨.
  -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신체 및 정신건강, 소득변동, 주거안정, 지출 및 소비, 고용, 교육, 가족 역동성과 육아, 스트레스 및 대응, 기대 및 문제, 가구 식량 안정성, 코로나-19 관련 등임.
- 설문조사와 함께 2회에 걸친 인터뷰가 계획됨.
  - 인터뷰 참여당 40달러의 보상이 제공될 예정임.

18) 1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 2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제7-3절 그 외 미국 보장소득 실험

- 이하에서는 앞선 LA시와 LA 카운티보다는 소규모이지만 보장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함.
-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미국 보장소득 실험 현황

도시	주	프로그램 명	자격 요건	규모 (명)	첫 지급 시점	기간 (년)	액수 (월, \$)
Alexandria	VA	ARISE: The city of Alexandria Guaranteed Income Pilot	시 지역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 거주자	170	2022년 여름 중순 예정	2	500
Atlanta	GA	I.M.P.A.C.T.	18세 이상이면서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의 소득자	300	2022.1. (25명) <sup>19)</sup> 2022.6. (275명) <sup>20)</sup>	1	500
Baltimore	MD	BYFSF (Baltimore Young Families Success Fund)	지원 마감일 기준 18세~24세이며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 수준의 300% 이하인 부모 <sup>21)</sup>	200	미정	2	1,000
Birmingham	AL	The Embrace Mothers	18세 미만의 자녀를 최소한 한 명 이상 돌보는 여성 가정 <sup>22)</sup>	110	2022.3.	1	375
Cambridge	MA	Cambridge Recurring Income for Success and Empowerment (RISE)	18세 미만인 자녀 최소 1명 이상을 돌보는 미혼자이면서 가구 규모 기준 연간 중위소득의 80% 미만	130	2021.9.	1	500
Chelsea	MA	Chelsea Eats 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	저소득 가정	2,000	2020.11.	6개월	200~400

19)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결과 분석

도시	주	프로그램 명	자격 요건	규모 (명)	첫 지급 시점	기간 (년)	액수 (월, \$)
Columbia	SC	CLIMB (Columbia Life Improvement Monetary Boost)	Midlands 아버지 연합에 등록된 자	100	2021.9.	1	500
Compton	CA	Compton Pledge	저소득 거주자	800	2020.12.	2	300~600
Denver	CO	Denver Basic Income Project	만 18세 이상의 파트너 업체에 속한 노숙자 <sup>23)</sup> 로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이 심각하지 않거나 없는 자	820	2022년 예정	1	500~1,000
Durham	NC	Excel Pilot Program	최근 5년 이내에 감옥에서 복귀한 자이면서 지역 연간중위소득 60% 이하의 자	109	2022.3.	1	600
Evanston	IL	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	연방 빈곤선 250% 이하 가구원 중 다음 조건 해당자 18~24세 또는 62세 이상 성인, 미등록 지역 거주자	150	2022.8.	1	500
Gainesville	FL	Just Income GNV	재소 이후 사회 복귀자	115	2022.1. (58명) 2022.3. (57명)	1	600 (첫 달만 1,000)
Gary	IN	G.I.V.E.	우편으로 발송 <sup>24)</sup> 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	125	2021.5.	1	500
Hudson	NY	Hudson UP	18세 이상, 매년 소득이 Hudson시의 연간중위소득(\$35,153) 미만	75	2020.11. (25명) 2021.10. (50명)	최대 5	500
Ithaca	NY	IGI (Ithaca Guaranteed Income)	지원 당시 시에 거주하며,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AMI)의 80% 미만인 무급 간병인	110	미정	1	450
Long Beach	CA	Long Beach 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	소득이 \$27,000이하이거나 빈곤선 이하이며 우편번호가 90813에 속한 한부모가정	500	2022년 여름(예정)	1	500

20)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 분석

도시	주	프로그램 명	자격 요건	규모 (명)	첫 지급 시점	기간 (년)	액수 (월, \$)
Louisville	KY	YALift	California, Russell 또는 Smoketown에 거주하는 만 18~24세인 자	150	2022.4.	1	500
Madison	WI	Madison Forward Fund	18세 이상의 주 거주자이며, 17세 이하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자	155	미정	1	500
Minneapolis	MN	Minneapolis Guaranteed Basic Income Pilot	2022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특정한 우편번호 <sup>25)</sup> 에 거주하고 연간 소득이 Minneapolis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전염병으로 피해 <sup>26)</sup> 를 받은 자	200	2022.6.	2	500
Mount Vernon	NY	Mount Vernon LEVEL UP Guaranteed Income Program	18세 이상의 주 거주자로 가구 연간 소득이 최소 \$15,000이며, CDBG 연간 소득의 80% 이하인자	200	미정	1	500
New Orleans	LA	Opportunity Youth	16~24세의 청년으로 교육,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자	125	2022.4.	10개월	350
Newark	NJ	Newark Movement for Economic Equity(NMEE)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인 경우	400	2021.11.	2	500
Oakland	CA	Oakland Resilient Families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족	600	2022.1.	1.5	500
Paterson	NJ	Paterson 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	18 세 이상, 연간 소득이 \$30,000 미만(1인가구) 혹은 가족 기준 \$88,000 미만	110	2021.7.	1	400
Providence	RI	Providence Guaranteed Income	미국 구제 계획 (American Rescue Plan)을 제외하고,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인 개인	110	2021.11.	1	500
Richmond	VA	Richmond Resilience Initiative	복지수당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가정	18가구	2020.10.	2	500



도시	주	프로그램 명	자격 요건	규모 (명)	첫 지급 시점	기간 (년)	액수 (월, \$)
Rochester	NY	Rochester Guaranteed Basic Income	연방 빈곤선의 185% 이하	175	미정	2	500
Sacramento	CA	DIPS	시 내 주소를 두며, 일정 소득 이하인 자 <sup>27)</sup>	180	2021.6.	2/1	300/500
Saint Paul	MN	People's Prosperity Pilot(PPP)	아기가 있는 주민	150	2020.10.	최대 1.5	500
San Diego	CA	San Diego for Every Child	San Diego와 National City의 특정한 우편번호 <sup>28)</sup> 에 거주하고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적어도 한 명인 유색 인종 가구	150	2022.3.	2	500
San Francisco	CA	The San Francisco Guaranteed Income Pilot for Artists(SF-GIPA)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소득 감소를 경험한 지역의 저소득 예술가들	130	2021.5.	1.5	1000
Santa Fe	NM	Santa Fe LEAP	산타페 커뮤니티 칼리지에 학생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모	100	2021.10.	1	400
Shreveport	LA	Shreveport Guaranteed Income Pilot	취학 연령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이자, 연방빈곤선 120% 이하의 소득자	110	2022.3.	1	660
South San Francisco	CA	SSF Guaranteed Income Pilot Program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호소를 떠나는 위탁 청소년 - 1인 가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 - 인구조사 지역에서 시의 최저 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자	160	2021.12.	1	500
Tacoma	WA	Growing Resilience in Tacoma(GRIT)	어린 아이가 있는 ALICE(Asset Limited, Income Constrained, Employed) 가정	100	2021.12.	1	500

21) 생물학적 또는 양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양육 책임이 있어야 함

22)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미혼모인 친구 또는 가족과 동거하는 미혼모, ② 어머니,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미혼모, ③ 시범사업 지원 및 진행기

도시	주	프로그램 명	자격 요건	규모 (명)	첫 지급 시점	기간 (년)	액수 (월, \$)
West Hollywood	CA	WHPGI (West Hollywood Pilot for Guaranteed Income)	지역 <sup>29)</sup> 연간 가구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 중 2022년 8월 1일 기준 50세 이상인 자	25	2022.9.	18개월	1,000

주: 각 도시의 보장소득 실험에 대한 출처는 참고문헌에 따로 제시함.

간 동안 양육중인 자녀를 둔 위탁모, ④홀로 사는 조모, 숙모, 사촌 또는 주로 친척의 자녀를 돌보는 여성인 기타 가족 구성원, ⑤부모가 재할원 또는 수감 등의 이유로 친구의 자녀를 돌보는 자, ⑥파트너가 감금되어 있는 어머니 또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성, ⑦법적으로 혼인 배우자와 별거하지 않았지만 자녀의 단독 부양자로 독립한 여성

23) 노숙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며, 고정되고 정기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어야 함

①적절한 대체 숙박 시설이 부족하여 모텔, 호텔, 캠핑장에 거주하는 경우, ②주택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③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에서 생활하는 경우, ④비상 대피소 또는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경우, ⑤일반적인 숙박시설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공 또는 사적 소유의 장소에서 야간 거주하는 경우

24) 4,000명에게 송부

25) 55403, 55404, 55405, 55407, 55411, 55412, 55413, 55430, 55454

26)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중 하나여야 함

①실직 또는 근무시간 단축 및 의료비 증가, ②보육 및 기술 또는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상실

27) DIPS 2.0에 한하며,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 한도 금액을 따로 명시함(<https://www.yourlocalunitedway.org/dips>)

28) 92114(Encanto), 92139(Paradise Hills), 91950(National City), 92173(San Ysidro)

29)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글렌데일 대도시 지역을 의미함

제 3 장

소득보장 정책실험 유형 비교





## 제3장 소득보장 정책실험 유형 비교



- 본 장에서는 서울시 안심소득을 비롯하여 2장에서 살펴본 국외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을 비교해보고자 함.

### 제1절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비교

- 정책실험의 비교를 위해 우선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sup>30)</sup>.
  - 정책 개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지급
    -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가구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 이전소득<sup>31)</sup>
  - 참여 대상: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sup>32)</sup>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26백만 원 이하인 가구<sup>33)</sup>
  - 실험설계 및 방법
    - 실험집단: 1~2단계 총 800가구
    - 비교집단: 1,600가구
    - 안심소득 지급기간: 2022.7.~2025.6.(3년)
    - 연구방법: 설문조사, 행정데이터 활용 및 인터뷰
- 각 소득보장 정책실험 유형을 참여 대상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30)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2022)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함.

31) 차감 공적 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32)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한편, 서울시 안심소득 정책실험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단계에 따라 참여대상 조건이 다소 상이함.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참여 소득 조건이 되나 2단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가 조건이 됨.

33) 가구의 재산평가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합에서 '부채'를 제한 값을 말함.

-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가구소득평가액(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평가액(326백만 원)을 기준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별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85%에서 가구소득 평가액을 제한 금액의 50%를 지급함. 이때 기초연금과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급여는 차감함.
- 핀란드는 25세에서 58세의 기초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함. 기본소득 급여는 월 560유로를 정액 지급함.
-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정책실험 대상자는 ‘익스 베소스(Eix Besòs)’의 10개 지역에 거주하는 25세에서 60세의 가구원이 있는 최소소득급여 수급 가구임.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은 가구 구성 유형 등을 통해 산출한 최소생활비와 최소주거비의 합인 가구생활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지급함(월 100~1,676유로).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정책실험의 목적은 사회부조 수급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방안을 찾는 데 있음. 따라서 정책실험의 대상자는 사회부조 수급자이고, 급여는 월 960유로를 지급하되, 실험집단 유형 중 노동시장 유인 집단은 실험기간 동안 근로소득의 50%를 공제함.
- 캐나다 온타리오의 실험 대상자는 최소 12개월 이상 실험 지역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로 1인 가구일 경우 연 34천 달러, 부부가구일 경우 연 48천 달러 미만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함. 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여 1인 가구의 경우 연 16,989달러 부부가구일 경우 연 24,027달러를 지급함. 다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추가 근로소득 1달러당 0.5달러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경우 해당 수급액을 차감하고 지급함.
- 미국 스톡턴의 보장소득 실험 대상자는 스톡턴 시 내에 지역 중위소득이 46,033달러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임. 보장소득 급여액은 월 500달러임.
-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연구-1의 참여 대상자는 18세 이상 독일 거주자로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 프로젝트를 통해 기본소득을 수급한 경험이 없는 자임. 해당 실험에서는 월 1,200

유료를 정액 지급함. 두 번째 연구-2 모형의 구체적인 참여 대상자는 미정임. 급여는 기본소득 액(1,200유로)과 50%를 모의 과세한 소득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됨.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음.

〈표 3-1〉 소득보장 정책실험별 참여 대상 및 급여 특성

구분	참여 대상 특성	급여 특성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소득평가액 중위소득 85% 이하</li> <li>• 재산평가액 326백만 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평가액 차액의 50% 지급</li> <li>- 기초연금 등 네 가지 유형의 공적 이전소득 차감</li> </ul>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58세</li> <li>• 기초실업수당 또는 노동시장보조금 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560유로 지급</li> <li>• 근로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정액 지급</li> </ul>
스페인 바르셀로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스 베소스(Eix Besòs)' 지역 거주자</li> <li>• 최소소득급여 수급가구</li> <li>• 가구 구성원 중 최소 한 명이 25~60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생활비와 가구소득의 차액 지급</li> <li>- 가구생활비: 기초생활비와 최소주거비의 합</li> <li>• 월 100~1,676유로 범위</li> </ul>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트레흐트 지역의 사회부조 수급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960유로 지급</li> <li>- 실험집단 유형 중 노동시장 유인 집단은 근로소득의 50% 공제</li> </ul>
캐나다 온타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64세</li> <li>• 최소 12개월 이상 기본소득 실험 지역 거주</li> <li>• 기준 소득 미만</li> <li>- 1인: 연 34천 달러, 부부: 연 48천 달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연 16,989달러, 부부: 연 24,027달러 지급</li> <li>• 추가 근로소득 1달러당 0.5달러 감액</li> <li>• 장애 존재 시 최대 500달러 추가 지급</li> <li>• 고용보험, 국민연금 급여 차감 후 지급</li> </ul>
미국 스톡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상</li> <li>• 스톡턴 시 내 지역 중위소득이 46,033달러 이하인 지역의 거주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500달러 지급</li> </ul>
독일 베를린 (연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거주자</li> <li>• 18세 이상<sup>34)</sup></li> <li>• '나의 기본소득(Mein Grundeinkommen)'으로부터 기본소득 수급 이력이 없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200유로 지급</li> </ul>
독일 베를린 (연구-2)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소득(1,200유로)과 기본소득 이외의 소득에 50% 모의 과세한 금액의 차액 지급</li> </ul>

34) 실험 진행과정에서 연령(21~40세)과 소득(1,200~2,600유로)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임(Heinze & Schupp, 2022).

## 제2절 급여 설계 방식에 따른 비교

- 각 소득보장 정책실험을 급여 설계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정액 지급 방식은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 급여 수준은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기준선(예를 들어 빈곤선)과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고, 대상자의 소득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됨.
- 정액 지급 방식의 장점은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낙인효과의 문제가 다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임. 또한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음.
- 반면, 단점은 재정 부담이 크고, 소비지출의 증대가 긴급하지 않은 집단에게도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비용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일부 사회구성원에게만 소득이 이전될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집단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액 지급 방식을 갖는 정책 모형의 예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모형과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정책실험, 미국 스톡턴의 정책실험, 독일 베를린의 첫 번째 연구모형임.
- 두 번째로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같이 사회적 기준선(예: 빈곤선)과 가구(개인)소득 간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임. 따라서 급여수준은 가구(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됨.
- 상기 방식은 대상자 모두 사회적 기준선만큼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짐.
-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의 장점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이라는 것임. 또한 비용 대비 가장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수급자의 근로유인 문제는 다른 방식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해당 방식의 정책실험 예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이 있음.
- 마지막으로 부의 소득세에 기초한 방식은 앞선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과 유사함.



다만,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이 기준선과 대상자의 소득 간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의 소득세 방식은 양자(兩者) 간 차액의 일정 비율(부의 소득세율)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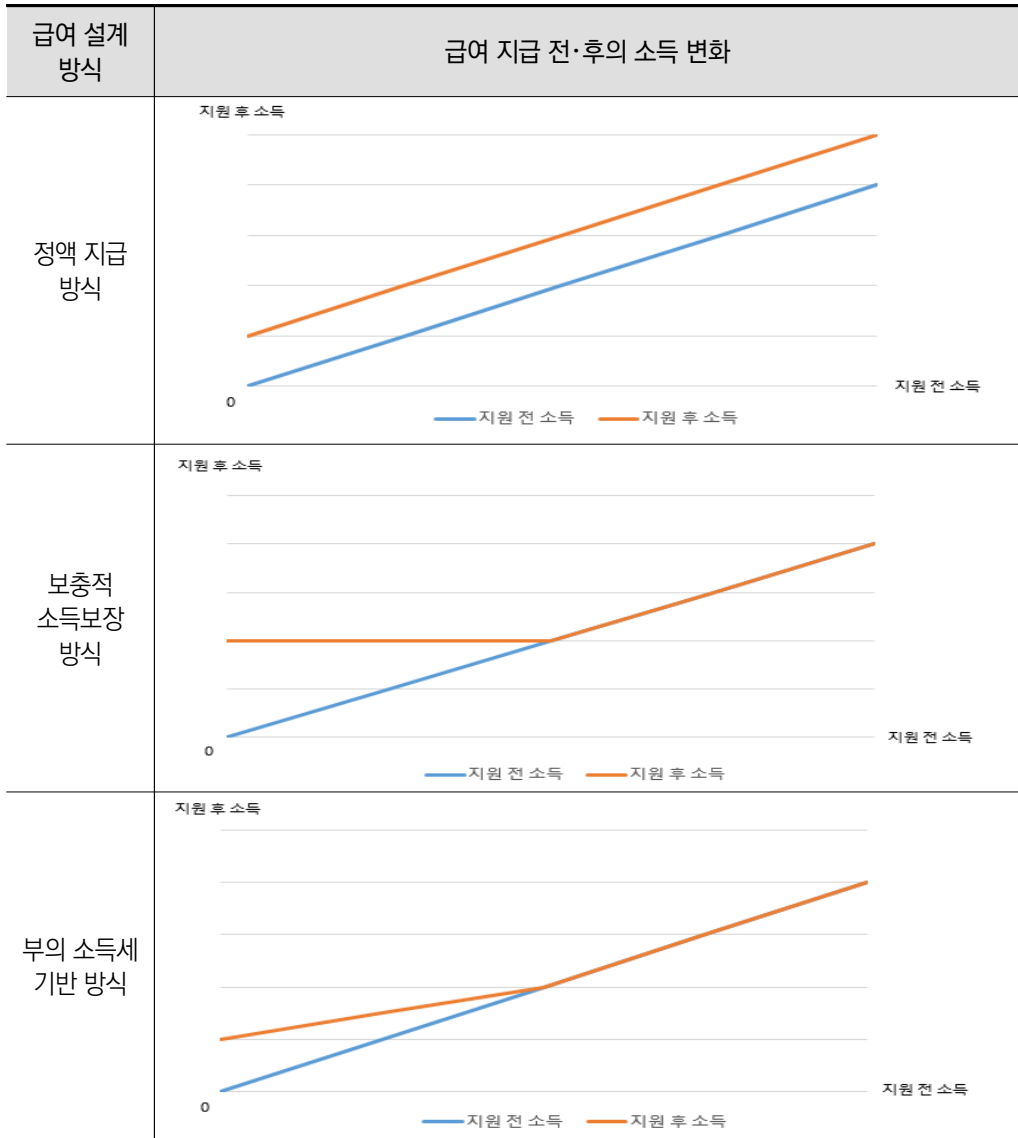
- 부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50%가 많이 제시되며, 이에 따라 급여수준이 결정됨.
- 해당 방식의 장점은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에 비해 근로유인 문제가 작다는 것임. 또한 재정 부담 역시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작을 것으로 보임.
- 부의 소득세에 기초한 소득보장정책의 단점은 대상자의 소득이 사회적 기준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분을 근로활동을 통해 보충해야 한다는 것임. 이는 빈곤문제 해결의 일정 부분을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맡기는 것으로, 이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들이 단점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상기의 급여 설계 방식을 가진 정책실험은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의 실험, 독일 베를린의 두 번째 연구모형임.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음.

**<표 3-2>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보장 정책실험 특성**

급여 방식	특성	정책실험 예시
정액 지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지원 대상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급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수준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기준선과 자원 조달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li> <li>- 지원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과 무관 (단, 미국 LA시와 LA 카운티의 보장소득 실험은 소득 조건을 가짐)</li> </ul> </li> <li>•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li> <li>- 낙인효과 등의 문제가 적고, 사회통합에 기여</li> </ul> </li> <li>•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부담이 큼</li> <li>- 일부 사회구성원에게만 지급될 경우 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란드</li> <li>• 네덜란드 위트레흐트</li> <li>• 미국 스톡턴</li> <li>• 독일 베를린(연구-1)</li> <li>• 미국 LA시</li> <li>• 미국 LA 카운티</li> </ul>
보충적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기준선(빈곤선 등)과 가구(개인)소득 간 차액 지원</li> <li>• 수급자 모두 사회적 기준선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바르셀로나</li> </ul>

급여 방식	특성	정책실험 예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수준은 개인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같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급여액 결정</li> </ul> </li> <li>•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임</li> <li>- 빈곤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용 대비 가장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li> </ul> </li> <li>•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유인 문제가 세 유형 중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음</li> </ul> </li> </ul>	
부의 소득세 기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기준선(빈곤선 등)과 가구(개인)소득 간 차액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수준은 차액의 50% 수준(부의 소득세율)에서 결정됨</li> </ul> </li> <li>•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에 비해 근로유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기대</li> <li>- 재정 부담이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적음</li> </ul> </li> <li>•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문제 해결의 일정 부분을 노동시장 참여에 의존하게 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li> <li>• 캐나다 온타리오</li> <li>• 독일 베를린(연구-2)</li> </ul>

- [그림 3-1]은 각 급여 설계 방식에 따른 소득 변화를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임.
- 정액 지급 방식은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원 전·후의 소득이 평행을 이룸.
-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의 급여 설계는 일정 기준선까지의 소득보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준선까지의 소득구간에서는 급여 지급 후 소득이 기준선까지 보장됨.
- 부의 소득세에 기반한 방식은 위의 보충적 소득보장 방식과 유사하나 부의 소득세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준선까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기준선과의 초기 소득 간의 차액의 일정 비율만 지급됨. 따라서 하후상박(下厚上薄)의 형태를 보임.



주: 정액 지급 방식의 사례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기본소득 설계, 즉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모형을 도식화한 것임.

[그림 3-1] 급여 설계 방식별 소득 변화 모식도

### 제3절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보장 정책실험 비교

- 이번 절에서는 앞선 소득보장 정책실험들 중 부의 소득세에 기초한 정책실험들을 보다 상세히 비교해 보고자 함. 구체적으로,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을 기준으로 캐나다 온타리오의 정책실험과 독일 베를린의 두 번째 연구모형을 비교할 것임.

#### 1.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의 정책실험

- 캐나다 온타리오의 정책실험은 근로소득 1달러 증가당 0.5달러를 감액하여 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에게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서울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를 소득 기준으로 하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34,000달러, 부부가구의 경우 연간 48,000달러를 기준으로 함.
-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급여로 지급하나 온타리오는 기준액(1인 가구: 연간 16,989달러, 부부가구: 연간 24,027달러)을 지급하고 추가 1달러 소득에 따라 0.5달러를 감액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
- 두 소득보장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를 몇 가지 전제조건을 설정한 상태에서 단순화하여 비교해 보고자 함<sup>35)</sup>. 조건은 다음과 같음.
  - 1인 가구의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함.
  -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급여액의 차감 및 조정은 고려하지 않음.
  - 조세부담에 관한 내용은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음.
  - 안심소득에서 소득액과 소득평가액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며, 재산 요건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 안심소득 및 기본소득 지급 전의 소득은 해당 소득의 지급 여부 및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함.
  - 두 정책실험의 시점 차이로 인한 이자율의 차이는 분석에 반영하지 않음.
  - 근로소득 외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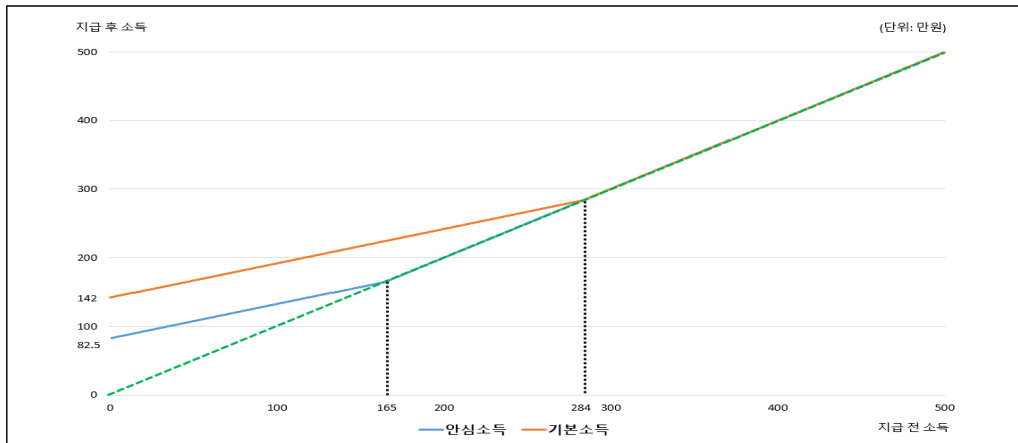
35) 각 소득급여의 비교는 안심소득과 온타리오 정책실험 참여자의 소득 변화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위함임. 본 비교에 불가수준이나 구체적 생활 여건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통해 구매력 평가 등의 지출 측면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해당 소득의 지급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변화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소득보장 급여 지급 전의 소득을  $Y_1$ , 지급 후 소득을  $Y_2$ 라고 했을 때,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는 <표 3-3> 및 [그림 3-2]와 같음.

<표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구분	소득 구분	소득 변화
서울시 안심소득	지급 전 소득이 165만 원 이하인 경우	$Y_2 = Y_1 + \frac{1}{2}(165 - Y_1) = \frac{1}{2}Y_1 + 82.5$
	지급 전 소득이 165만 원 초과인 경우	$Y_2 = Y_1$ (안심소득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지급 전 소득이 284만 원 미만인 경우	$Y_2 = 142 + Y_1 - \frac{1}{2}Y_1 = \frac{1}{2}Y_1 + 142$
	지급 전 소득이 284만 원 이상인 경우	$Y_2 = Y_1$ (기본소득 지급대상이 아님)

주1: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원 × 85% = 1,653,090.2 ≃ 165만원  
 주2: 1CAD = 1,001.65원(2022.07.06.기준), 34,000CAD ÷ 12 ≃ 2833.3CAD = 2,837,974.94원 ≃ 284만원,  
 16,989CAD ÷ 12 = 1,415.75CAD = 1,418,085.99 ≃ 142만원



[그림 3-2] 서울시 안심소득과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 급여에 따른 소득 변화를 소득구간별로 정리하면 <표 3-4>와 같음.

- 급여 지급 후의 소득은 일정소득 이하 구간에서 기본소득이 더 높게 나타남. 이는 두 소득보장 모형의 소득기준점이 상이하기 때문임.

〈표 3-4〉 서울시 안심소득과 온타리오 기본소득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급여 지급 전 소득구간	안심소득 및 기본소득 적용 여부	지급 후 소득
0~165만 원 이하	모두 적용	캐나다 온타리오 기본소득 수급자가 59.5만 원 더 많음
165만 원 초과 ~284만 원 미만	기본소득만 적용	기본소득 수급자의 소득이 더 많으나 지급 전 소득이 284만 원에 근접할수록 두 참여자(대상)의 소득 차이는 줄어들
284만 원 이상	모두 미적용	두 모형 간 소득 차이 없음

## 2.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연구-2 모형)

- 독일 베를린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 중 ‘연구-2’의 모형은 부의 소득세 모형에 기반하고,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기본소득액과 소득의 차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연구-2의 소득모형과 안심소득 모형을 비교해 보고자 함.
- 먼저, 참여 조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안심소득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26백만 원)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베를린의 기본소득 실험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sup>36)</sup>.
- 다만, 베를린 모형의 경우 기존 소득에 50%의 모의 과세 후 기본소득액(1,200유로)과의 차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이 2,400유로 이상일 경우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없음. 따라서 직접적인 소득 조건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소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두 번째로 서울시 안심소득과 베를린의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를 제한적 이나마 비교해 보고자 함<sup>37)</sup>. 이를 위해 다음의 조건을 전제함.

36) 초기 실험대상자 모집에서 연령과 소득 조건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령(21~40세)과 소득(1,200~2,600유로)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임(Heinze & Schupp, 2022).

-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함.
  -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급여액의 차감이나 조정은 고려하지 않음.
  - 조세부담에 관한 내용은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소득에서 제시된 50%의 모의과세만을 분석에 반영함.
  - 안심소득의 경우 소득액과 소득평가액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재산 요건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 안심소득 및 기본소득 지급 전의 소득은 해당 소득의 지급 여부 및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가정함.
- 소득보장 급여 지급 전의 소득을  $Y_1$ , 지급 후 소득을  $Y_2$ 라고 했을 때, 서울시 안심소득과 베를린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는 <표 3-5> 및 [그림 3-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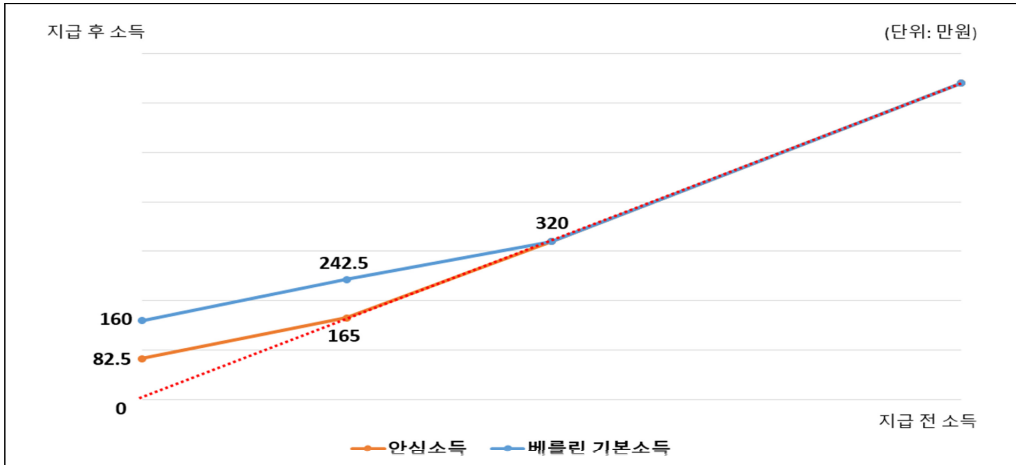
**<표 3-5>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산식**

구분	소득 구분	소득 변화
서울시 안심소득	지급 전 소득이 165만 원 이하인 경우	$Y_2 = Y_1 + \frac{1}{2}(165 - Y_1) = \frac{1}{2}Y_1 + 82.5$
	지급 전 소득이 165만 원 초과인 경우	$Y_2 = Y_1$ (안심소득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
베를린 기본소득 (연구-2)	지급 전 소득이 320만 원 이하인 경우	$Y_2 = \frac{1}{2}Y_1 + 160$
	지급 전 소득이 320만 원 초과인 경우	$Y_2 = Y_1$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음)

주1: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원  $\times$  85% = 1,653,090.2  $\approx$  165만원

주2: 1유로 = 1,358원(2022.06.27.기준), 1,200유로 = 1,629,600원  $\approx$  160만원

37) 앞선 안심소득과 온타리오 기본소득 비교와 마찬가지로 본 분석 내용만으로 지출 측면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베를린 기본소득의 경우 소득 조건이 없던 초기 모형을 전제로 함. 만약 소득 조건이 부여된 상태의 결과를 보고자 할 경우 해당 소득 구간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서울시 안심소득과 독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 변화

-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 급여에 따른 소득 변화를 소득구간별로 정리하면 <표 3-6>과 같음.
- 급여 지급 후의 소득은 일정소득 이하 구간에서 기본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두 소득보장 모형의 소득기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임<sup>38)</sup>.

<표 3-6> 서울시 안심소득과 베를린 기본소득(연구-2)의 급여 지급에 따른 소득구간별 소득 비교

급여 지급 전 소득구간	안심소득 및 기본소득 적용 여부	지급 후 소득
0~165만 원 이하	모두 적용	베를린 기본소득 수급자가 87.5만 원 더 많음
165만 원 초과 ~320만 원 이하	기본소득만 적용	기본소득 수급자의 소득이 더 많으나 지급 전 소득이 320만 원에 근접할수록 두 참여자(대상)의 소득 차이는 줄어듦
320만 원 초과	모두 미적용	두 모형 간 소득 차이 없음

38) 소득보장 설계는 재정 부담 측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정책실험 역시 그것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한 본 비교를 통해 어떠한 모형이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고동현(2018). “바르셀로나의 시민소득 실험, B-MINCOME”. LAB2050. <https://medium.com/lab2050/%EB%B0%94%EB%A5%B4%EC%85%80%EB%A1%9C%EB%82%98%EC%9D%98-%EC%8B%9C%EB%AF%BC%EC%86%8C%EB%93%9D-%EC%8B%A4%ED%97%98-b-mincome-edb36d013355>. (검색일: 2022.06.29.)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2019). “[2019년 2월 8일 Kela & 보건사회부 보도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예비결과: 스스로 느끼는 웰빙이 개선되었지만, 1년차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https://basicincomekorea.org/kela-press-release-preliminary-results-feb-8-2019>. (검색일: 2022.08.01.)
- 김도훈(2019).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계획과 중간평가”. 사회보장법학, 8(2), 97-138.
- 노대명(2022a).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운영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노대명(2020b).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운영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노정호(2018). “핀란드와 네덜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25(1), 71-96.
- 박윤수·강창희(2018). “정책실험 시범사업”.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박윤수 편. 한국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2022). “2022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서정희(2019). “새로운 분배실험: 전부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쉽표 프로젝트’ 효과”. 비판사회정책, 63, 101-146.
- 서현수·최한수(2020).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스칸디나비아연구, 26, 1-45.

- 오윤섭·이아영(2018).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실험”.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정책실험 도입방안 연구. 박윤수 편. 한국개발연구원.
- 이건민(2019). “과학이 사회보장개혁을 만나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총괄하는 세미나의 발표문들”. 월간 시대, 68, 43-51.
- 최영준·구교준·고동현(2020). 정책실험의 개념과 필요성: 청년 기본소득 지급 실험 모델 제안. LAB2050.
- 최한수(2017).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251, 32-58.
- 최한수(2021). “핀란드의 기본소득실험 결과와 그 정책적 교훈”. 월간 공공정책, 184, 29-30.
- 통계청(2021a). 소득분배지표. 「가계금융복지조사」. (검색일: 2022.05.27.).
- 통계청(2021b). 1인당 국내총생산(당해년가격)(OECD). (검색일: 2022.07.26.). 원자료: 한국은행. 「<https://ecos.bok.or.kr>». 2021. 8., The World Bank. 「<https://www.worldbank.org>». 2021.7., 대만통계청. 「<https://www.stat.gov.tw>». 2021.2.8.
-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2021 장애통계연보.
- Arleta Neighborhood Council(2022). “LA County’s Breathe Program”. <https://arletanc.org/2022/04/09/la-countys-breathe-program>. (검색일: 2022.08.01.)
- Basic Income Canada Network and Ontario Basic Income Network(2019). Signposts to Success: Report of BICN Survey of Ontario Basic Income Recipients.
- Blomberg, H., Jauhiainen, S., Kanerva, M., Kangas, O., Komu, M., Kroll, C., Lassander, M., Niemelä, M., Simanainen, M., Tuulio-Henriksson, A., Ylikännö, M.(2019). “Wellbeing effects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 Ylikännö, M. (Eds.).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Helsinki, Finland.

- Bright Magazine(2018). “Should poor people get free money? Canada says yes, then no.” (2028.08.23. 기사). <https://brightthemag.com/poor-people-free-money-canada-cash-transfer-basic-income-fb407ab85fcb>. (검색일: 2022.08.08.)
- CBS Los Angeles(2022). “LA County guaranteed income program begins accepting applications”. (2022.03.01. 기사). <https://www.cbsnews.com/losangeles/news/la-county-guaranteed-income-program-begins-accepting-applications-thursday>. (검색일: 2022.08.09.)
- CBS News(2021). “Experiment in guaranteed income leads to more work and better health, analysis shows”. (2021.03.09. 기사). <https://www.cbsnews.com/news/basic-guaranteed-income-stockton-experiment>. (검색일: 2022.08.08.)
- CBS News(2022). “One legacy of COVID-19: More cash for Americans in need”. (2022.05.25. 기사). <https://www.cbsnews.com/news/guaranteed-income-pandemic-spurs-rise-in-direct-cash-transfers-across-us>. (검색일: 2022.08.09.)
- City of New Orleans(2022). “City of New Orleans announces launch of guaranteed income program”. Mayor’s office, News. (2022.05.04. 기사). <https://nola.gov/mayor/news/may-2022/city-of-new-orleans-announces-launch-of-guaranteed-income-program>. (검색일: 2022.08.09.)
- CNBC(2017). “Canada tests ‘basic income’ effect on poverty amid lost jobs”. (2017.11.30. 기사). <https://www.cnn.com/2017/11/30/canada-tests-basic-income-effect-on-poverty-amid-lost-jobs.html>. (검색일: 2022.08.08.)
- County Health Rankings & Roadmaps(2020). “Stockton, CA SEED Initiative”. <https://www.countyhealthrankings.org/stockton-ca-seed-initiative>. (검색일: 2022.08.01.)
- County of Los Angeles(2022). Los Angeles County’s Guaranteed Income Project Research & Evaluation Plan. [http://file.lacounty.gov/SDSInter/lac/1123813\\_LACountyResearchPlan.pdf](http://file.lacounty.gov/SDSInter/lac/1123813_LACountyResearchPlan.pdf). (검색일: 2022.07.01.)

- De Wispelaere, J., Halmetoja, A., & Pulkka, V.-V.(2019).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A Primer”.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pp. 389-406). Palgrave Macmillan, Cham.
- Evening Standard(2020). “Universal basic income won’t help people find work but it will make them happier, expert report finds”. (2022.03.04. 기사). <https://www.standard.co.uk/news/uk/universal-basic-income-work-happier-a4373691.html>. (검색일: 2022.08.08.)
- Ferdosi, M., McDowell, T., Lewchuk, W., & Ross, S.(2020). Southern Ontario’s Basic Income Experience. Hamilton Roundtable for Poverty Reduction, McMaster University, & Hamilton Community Foundation.
- Focus Online(2021). “1200 Euro vom Staat für uns alle? 4 Gründe, warum wir damit nicht glücklich werden(1200 euros from the state for all of us? 4 reasons why we won't be happy with it)”. (2021.07.01. 기사). [https://m.focus.de/finanzen/vier-gruende-warum-ein-bedingungsloses-grundeinkommen-nicht-funktioniert\\_id\\_13452994.html](https://m.focus.de/finanzen/vier-gruende-warum-ein-bedingungsloses-grundeinkommen-nicht-funktioniert_id_13452994.html) (검색일: 2022.08.08.)
- Frankfurter Rundschau(2021). “Wie wirkt sich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aus? “Die Kopfschmerzen sind weg”(What is the effect of the unconditional basic income? “The headaches are gone)”. (2022.09.13. 기사) <https://www.fr.de/wirtschaft/die-schmerzen-sind-weg-90978253.html>. (검색일: 2022.08.08.)
- Hämäläinen, K., Kanninen, O., Simanainen, M., & Verho, J.(2019). “Employment effects for the first year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In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 Ylikännö, M. (Eds.).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Helsinki, Finland.

- Heinze, R. G. & Schupp, J.(2022). Grundeinkommen: Von der Vision zur schleichenden sozialstaatlichen Transformation. Springer VS.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2022). “Population of the continuous municipal register by population unit at 1st January). [https://www.ine.es/nomen2/index.do?accion=busquedaAvanzada&entidad\\_amb=no&codProv=08&codMuni=19&codEC=0&codES=0&codNUC=0&denominacion\\_op=like&denominacion\\_txt=&L=1](https://www.ine.es/nomen2/index.do?accion=busquedaAvanzada&entidad_amb=no&codProv=08&codMuni=19&codEC=0&codES=0&codNUC=0&denominacion_op=like&denominacion_txt=&L=1). (검색일: 2022.08.10.)
- Kangas, O.(2017).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국제노동브리프, 15(10), 9-19.
- Kangas, O. & Simanainen, M.(2017). “Basic income experiment at halfway point”. <https://tutkimusblogi.kela.fi/arkisto/4352>. (검색일: 2022.08.01.)
-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 Ylikännö, M.(2019). “What is the Finnish basic income experiment about?” In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 Ylikännö, M. (Eds.). The Basic Income Experiment 2017–2018 in Finland, Preliminary results.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Helsinki, Finland.
- Lain, B.(2019a). Report on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 B-MINCOME project (2017–2018): Combining a guaranteed minimum income and active social policies in deprived urban areas of Barcelona. Ajuntament de Barcelona.
- Lain, B.(2019b). “Barcelona B-MINCOME Pilot”. [https://ec.europa.eu/social/main.jsp?advSearchKey=B-MINCOME+Pilot+&mode=advancedSubmit&catId=1307&doc\\_submit=&policyArea=0&policyAreaSub=0&country=0&year=0](https://ec.europa.eu/social/main.jsp?advSearchKey=B-MINCOME+Pilot+&mode=advancedSubmit&catId=1307&doc_submit=&policyArea=0&policyAreaSub=0&country=0&year=0). (검색일: 2022.08.01.)
- Martin-West, S., Baker, A. C., Balakrishnan, S., Rao, K., & Tan, G. Y.(2018). Pre-Analysis Plan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039d612b17d055cac14070f/t/605029f652a6b53e3dd39044/1615866358804/SEED+Pre-analysis+Plan.pdf>. (검색일: 2022.06.20.)

- Mein Grundeinkommen e.V.(2022). “Dr. Motte und Mein Grundeinkommen verlosen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im Wert von 300.000 Euro(Dr. Motte and My Basic Income raffle Unconditional basic income worth 300,000 euros)”. (2022.07.07. 기사). <https://www.presseportal.de/pm/142772/5267788>. (검색일: 2022.08.08.)
- Mid City Neighborhood Council(2021). “LA Basic Income Guaranteed Information & Webinars”. <https://www.mincla.org/post/la-basic-income-guaranteed-webinars>. (검색일: 2022.08.01.)
- NPR(2021). “California program giving \$500 no-strings-attached stipends pays off, study finds”. (2021.03.04.). <https://www.npr.org/2021/03/04/973653719/california-program-giving-500-no-strings-attached-stipends-pays-off-study-finds>. (검색일: 2022.08.08.)
- NU.nl(2019). “Gaat dat basisinkomen er ooit nog van komen in Nederland? (Will that basic income ever come about in the Netherlands?)”. (2019. 02.09. 기사). <https://www.nu.nl/geldzaken/5732349/gaat-dat-basisinkomen-er-ooit-nog-van-komen-in-nederland.html>. (검색일: 2022.08.08.)
- Ontario(2021). “Archived-Ontario Basic Income Pilot: Learn about the pilot project”. <https://www.ontario.ca/page/ontario-basic-income-pilot>. (검색일: 2022.06.16.)
- Pilotprojekt Grundeinkommen(2022). “Wir wollen es wissen.”.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 (검색일: 2022.06.23.)
- Pilotprojekt Grundeinkommen Team(2021). “Um uns um Andere kümmern zu können, brauchen wir Zeit und Ressourcen”. <https://www.pilotprojekt-grundeinkommen.de/journal/susann-fiedler-interview-grundeinkommen-gesellschaftliches-wohl>. (검색일: 2022.06.21.)
- Sinpermiso(2019). “El proyecto piloto B-MINCOME de Barcelona: experimentos,



- resultados y ¿mercado laboral?(The B-MINCOME pilot project in Barcelona: experiments, results and the labour market?). (2019.09.19. 기사). <https://ww.sinpermiso.info/textos/el-proyecto-piloto-b-mincome-de-barcelona-experimentos-resultados-y-mercado-laboral>. (검색일: 2022.08.08.)
-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2019). “Our Vision for SEED: A Discussion Paper”.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039d612b17d055cac14070f/t/605029ab52a6b53e3dd38cf8/1615866284641/10+-+SEED+Discussion+Paper.pdf>. (검색일: 2022.08.01.)
-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Dashboard(2022). “How is the \$500 impacting people?” <https://seed.sworps.tennessee.edu/spending.html>. (검색일: 2022.08.01.)
- The Guardian(2018). “Ontario’s new conservative government to end basic income experiment”. (2018.08.01.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aug/01/ontarios-new-conservative-government-to-end-basic-income-experiment>. (검색일: 2022.08.08.)
- The Guardian(2020). “Finnish basic income pilot improved wellbeing, study finds”. (2022.11.07.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may/07/finnish-basic-income-pilot-improved-wellbeing-study-finds-coronavirus>. (검색일: 2022.08.08.)
- The Jordan Times(2020). “In Finland, basic income boosts well-being but not jobs-study”. (2022.05.06. 기사). <https://www.jordantimes.com/news/features/finland-basic-income-boosts-well-being-not-jobs-%E2%80%94-study>. (검색일: 2022.08.08.)
- The New York Times(2019). “Finland’s basic income trial boosts happiness, but not employment”. (2019.02.09.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2/09/world/europe/finland-basic-income.html>. (검색일: 2022.08.08.)
- The Washington Post(2021). “Cash payments spread from Congress to

- Stockton to Brazil-but not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far from reality”. (2021.04.22.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1/04/22/guaranteed-income-ubi-stockton-congress-aid/>. (검색일: 2022.08.08.)
- TMJ4 News(2022). “360: Perspectives on whether Milwaukee offer a guaranteed income program like Madison”. (2022.07.23. 기사). <https://www.tmj4.com/news/local-news/360-perspectives-on-whether-milwaukee-should-offer-a-guaranteed-income-program-like-madison>. (검색일: 2022.08.09.)
- Verlaat, T., de Kruijk, M., Rosenkranz, S., Groot, L., & Sanders, M.(2020a). Study What Works: Summary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Utrecht University.
- Verlaat, T., de Kruijk, M., Rosenkranz, S., Groot, L., & Sanders, M.(2020b). Onderzoek Weten wat werkt: samen werken aan een betere bijstand. Universiteit Utrecht.
- West, S., Baker, A. C., Samra, S., & Coltrera, E. (2021).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Preliminary Analysis: Seed’s First Year (Vol. 603, p. 1614737690661). Technical report,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039d612b17d055cac14070f>. (검색일: 2022.06.20.)
- 20minutos(2018). “La prueba de renta municipal de Barcelona llega a 950 familias de barrios del Besòs(The Barcelona municipal income test reaches 950 families in Besòs neighborhoods)”. (2018.05.29. 기사). <https://www.20minutos.es/noticia/3353994/0/prueba-renta-municipal-b-arcelona-llega-950-familias-barrios-besos>. (검색일: 2022.08.08.)

**홈페이지**

<https://bigleap.lacity.org>. (검색일: 2022.07.01.)

<https://ceo.lacounty.gov/pai/breathe> (검색일: 2022.07.01.)

<https://www.mayorsforagi.org>. (검색일: 2022.07.01.)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A guaranteed income changes lives.' <https://www.stocktondemonstration.org>. (검색일: 2022.06.21.)

**미국 보장소득 실험 참고 웹사이트**

Atlanta: <https://www.11alive.com/article/money/atlanta-residents-guaranteed-income-pilot-program/85-d3f1386c-7ab0-4545-93d5-ef0f4afd7fad>.

Alexandria: <https://www.alexandriava.gov/economic-support/faqs-about-arise-the-guaranteed-income-pilot>. <https://www.actforalexandria.org/initiatives/t/guaranteed-basic-income-pilot-program>.

Baltimore: <https://mayor.baltimorecity.gov/news/press-releases/2022-05-02-applications-open-baltimore%E2%80%99s-guaranteed-income-pilot-program>.

Birmingham: <https://www.birminghamal.gov/embracemothers>.

Cambridge: <https://www.cambridgerise.org>.

Chelsea: <https://www.hks.harvard.edu/centers/taubman/programs-research/rappaport/research-and-publications/special-collections/covid-19-relief-chelsea-ma>.

Columbia: <https://www.wistv.com/2021/09/14/first-direct-payments-coming-columbia-fathers-through-climb-guaranteed-income-pilot-program>.  
[https://www.postandcourier.com/columbia/news/columbia-leaders-back-guaranteed-income-project-to-give-midlands-fathers-monthly-stipend/article\\_db155834-ceb7-11eb-8a2d-9327c2efeb70.html](https://www.postandcourier.com/columbia/news/columbia-leaders-back-guaranteed-income-project-to-give-midlands-fathers-monthly-stipend/article_db155834-ceb7-11eb-8a2d-9327c2efeb70.html).

Compton: <https://comptonpledge.org/about>.

Denver: <https://denverbasicincomeproject.org/participant-criteria>.

Durham: <https://www.stepupdurham.org/latest-news/guaranteed-income>.

Evanston: <https://www.cityofevanston.org/Home/Components/News/News/5736/17>. <https://thepressreleaseengine.com/City+to+Launch+Guaranteed+Income+Pilot+Program-lnid2022-5056-366501>.

Gainesville: <https://jignv.org>.

Gary: <https://www.chicagotribune.com/suburbs/post-tribune/ct-ptb-gary-give-program-st-0226-20210225-xoo3mviy7vbvpxry6egbquy24-story.html>.

Hudson: <https://www.hudsonup.org>.

Ithaca: <https://hsctc.org/igi>. <https://ithacavoice.com/2022/05/ithaca-guaranteed-income-still-onboarding-first-payments-scheduled-for-june>.

LA County: [http://file.lacounty.gov/SDSInter/lac/1123813\\_LACountyResearchPlan.pdf](http://file.lacounty.gov/SDSInter/lac/1123813_LACountyResearchPlan.pdf). <https://lbpost.com/news/long-beach-guaranteed-income-program-on-track-to-start-payments-by-early-this-summer>. <https://lbpost.com/news/how-to-apply-for-a-chance-to-receive-1000-a-month-from-la-countys-guaranteed-income-program>. <https://www.nbcloseangeles.com/local-2/la-guaranteed-income-application-deadline-how-to-apply/2868283>.

Long Beach: <https://lbpost.com/news/long-beach-guaranteed-income-program-on-track-to-start-payments-by-early-this-summer>. <https://www.longbeach.gov/recovery/news/long-beach-guaranteed-income-pilot-program-for-select-long-beach-residents>.

Los Angeles: <https://bigleap.lacity.org>.

Louisville: <https://metrounitedway.org/program/yalift>.

- Newark: <https://www.newarknj.gov/news/guaranteed-income-pilot-program-expands-to-400-newark-residents#:~:text=Earlier%20this%20year%2C%20the%20City,on%20those%20experiencing%20housing%20insecurity.>
- Madison: <https://www.nbc15.com/2022/06/21/madison-forward-fund-provide-guaranteed-income-households-need.>
- Minneapolis: <https://www.minneapolismn.gov/government/programs-initiatives/basic-income.>
- Mount Vernon: <https://yonkerstimes.com/mount-vernon-to-provide-500-per-month-to-low-income-residents-under-new-level-up-guaranteed-income-pilot-program.> <https://www.cmvny.com/588/Mayors-Guaranteed-Income-Initiative.>
- New Orleans: <https://www.wwno.org/news/2021-04-02/new-orleans-will-give-unconditional-cash-payments-to-opportunity-youth.>
- Oakland: <https://oaklandresilientfamilies.org.>
- Paterson: <https://www.patersonnj.gov/department/division.php?structureid=148.>
- Providence: <https://www.providenceri.gov/mgi.>
- Richmond: <https://www.rva.gov/human-services-press-releases-and-announcements-mayors-office/news/stoney-administration-launch.>
- Rochester: <https://spectrumlocalnews.com/nys/rochester/community/2022/04/27/who-will-get-guaranteed-basic-income-in-rochester-.>
- Sacramento: <https://www.yourlocalunitedway.org/dips.>
- Saint Paul: <https://www.stpaul.gov/departments/financial-empowerment/peoples-prosperity-guaranteed-income-pilot.>
- San Diego: <https://www.sandiegoforeverychild.org/san-diego-for-every-child-to-receive-1-4-million-from-state-budget-for-regions-first-guaranteed-income-project.>

San Francisco: <https://www.guaranteedinc.org>.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1520b7a3397d0569808c600/t/61786fe974d2cf2cbe97b109/1635282924074/Guaranteed+Income+Pilot+Report.pdf>.

Santa Fe: <https://santafeleap.org>.

Shreveport: <https://www.shreveportla.gov/faq.aspx?qid=372>.

South San Francisco: <https://everythingsouthcity.com/2021/08/applications-for-ssf-guaranteed-income-pilot-program-deadline-august-27-2021>.  
<https://www.abc10.com/article/news/local/california/san-francisco-bay-area-income-pilot-program/103-f66fb862-b013-41d8-af7d-5674c1b308c5>. Tacoma: [https://www.tacomacc.edu/about/newsroom/\\_summer2021\\_spring2022/grit\\_program](https://www.tacomacc.edu/about/newsroom/_summer2021_spring2022/grit_program).

West Hollywood: <https://www.ncjwla.org/whpgi>.

서울시복지재단-2022-7

2022년 ③

## 소득보장 정책실험 해외동향 연구

발행일 2022년 7월 31일  
발행처 서울시복지재단  
발행인 김상철  
편집인 류명석

주 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전 화 02-6363-0200  
팩 스 02-6353-0221  
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http://www.welfare.seoul.kr)  
인쇄업체 명문인쇄공사 02-2079-9200  
I S B N 978-89-6298-439-2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안심소득 정책실험이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비매품/무료  
93330

9 788962 984392  
ISBN 978-89-6298-439-2